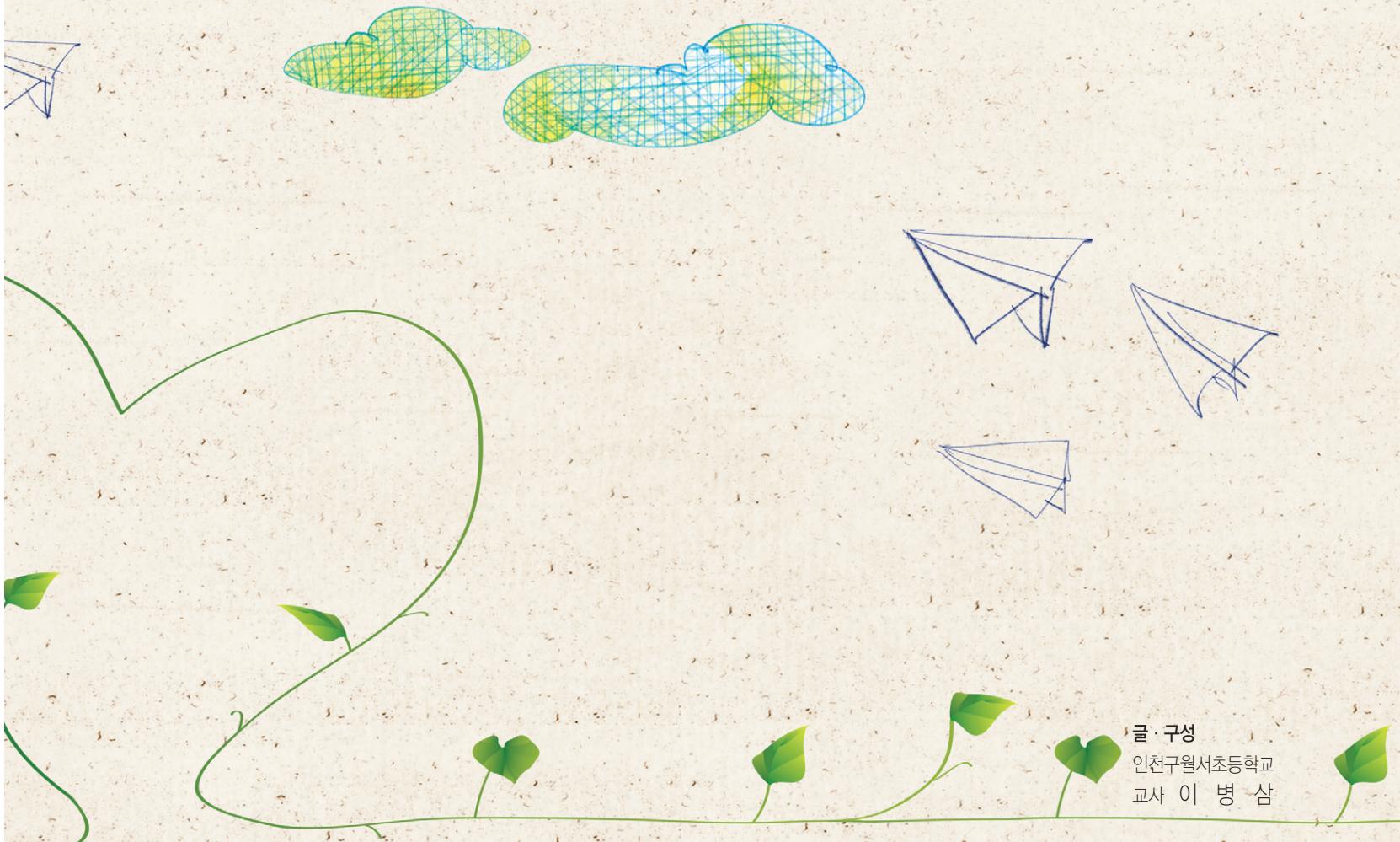


당신의 수많은 생활 속에서
기억되는 특별한 날

사랑, 웃음, 성장, 신뢰, 진학
칭찬, 합격, 격려, 봉사, 만남

더 큰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합니다.



글·구성
인천구월서초등학교
교사 이 병 삼

Contents

「현장교육」 7 JULY 2011



6 기획Ⅰ 창의·인성수업, 멋지게 해내기

- 8 창의·인성수업에 도전하는 선생님께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교장 이범웅

창의·인성수업사례

- 14 국어과(인천신송초등학교 교사 남유미)
18 수학과(인천계산초등학교 교사 장 혁)
22 수학과(인천공항중학교 교사 김경화)
26 사회과(인천마장초등학교 교사 김정아)
30 사회과(신송중학교 교사 한다원)
34 과학과(인천부평남초등학교 교사 김홍희)
38 과학과(인천신현고등학교 교사 이두영)

42 기획Ⅱ 감성이 살아있는 학급경영

- 44 따뜻한 감성리더십을 통한 학급경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관 김철구
48 놀이로 배우는 우리 학급
인천진지초등학교 교사 이미선
52 (RIASEC 성격유형에 따른)
긍정적 이미지를 통한 소통
연수여자고등학교 교사 이명희
58 특수학급, 그 아름다운 여정
인천검단초등학교 교사 최성경
62 알콩달콩 행복한 유치원 이야기
인천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
병설유치원 교사 백수경

66 교단작가와의 만남

재능유비쿼터스고등학교 교사 송영옥



68 교육어플장터

68 입학사정관제, 이것만 알면 백점교사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사 전병준

72 글 쓰는 선생님을 위하여
동화작가 이동렬

76 선생님, 건강하신가요?
인천고잔고등학교 교사 박경선

80 교육, 당신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82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인천주안도서관 주무관 윤은숙

84 학생과학관에서의 생활과 나의 삶
인천학생과학관 해설사 조미숙

86 진정한 자식사랑이 무엇일까
인천후정초등학교 학부모 류정하

87 독자투고

88 편집후기

발간사

2011년 「현장교육」이
새로운 옷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2011년 「현장교육」이 새로운 옷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We want to BE with YOU.

당신의 마음이 되어 함께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교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의 · 인성수업의 구현, 감성을 키우는 학급운영.

시대의 사명을 온 몸으로 느끼지만

막상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민은 자꾸만 깊어집니다.

창의 · 인성교육 시대에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공유”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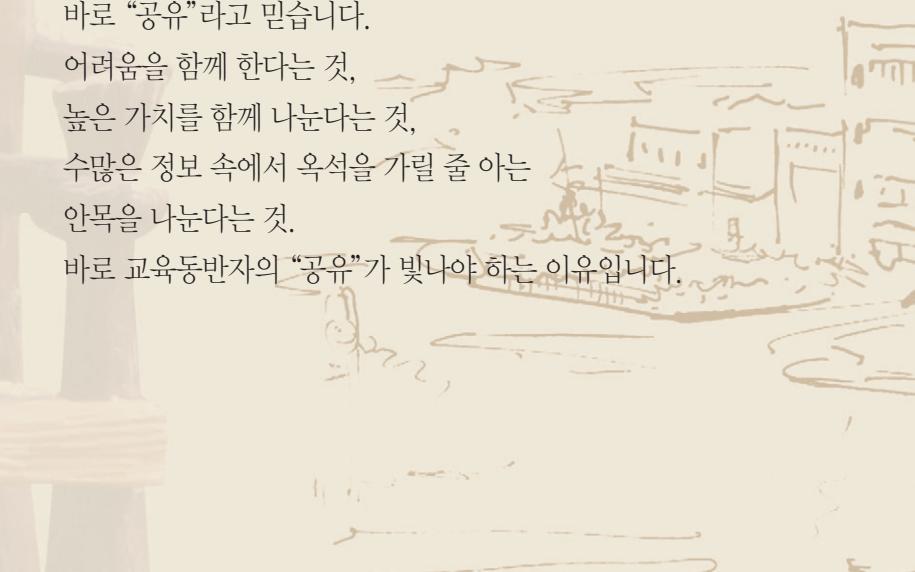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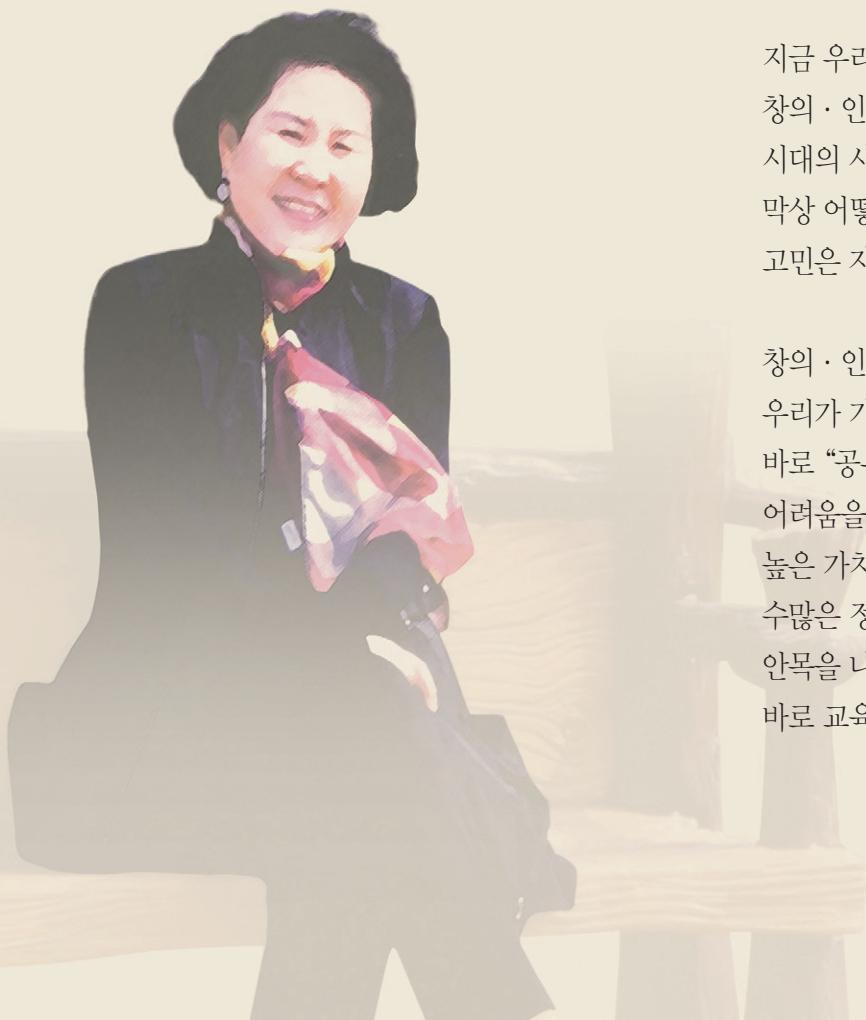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것,

높은 가치를 함께 나눈다는 것,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안목을 나눈다는 것.

바로 교육동반자의 “공유”가 빛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창의 감성

인성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띠 보면
여러분 곁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멋진 수업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동료교사,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를 빛나게 하는 교육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그 분들을 교육동반자라고 말합니다.

본 자료를 통해 교육동반자인
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합니다.
「현장교육」과의 만남으로 더욱 힘을 내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이 쟁지

기획 I

창의 · 인성수업, 멋지게 해내기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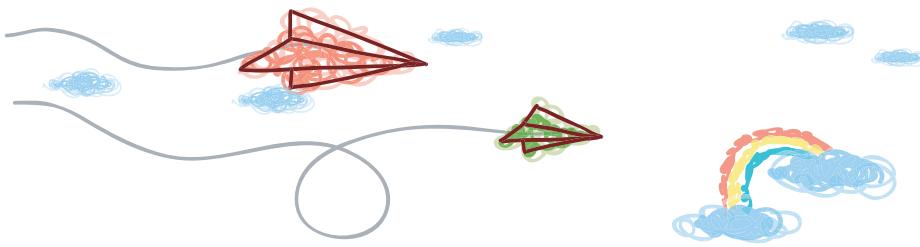
8 창의 · 인성수업에 도전하는 선생님께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교장 이범웅

창의 · 인성수업사례

- 15 국어과 (인천신송초등학교 교사 남유미)
- 18 수학과 (인천계산초등학교 교사 장 혁)
- 22 수학과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김경화)
- 26 사회과 (인천마장초등학교 교사 김정아)
- 30 사회과 (신송중학교 교사 한다원)
- 34 과학과 (인천부평남초등학교 교사 김홍희)
- 38 과학과 (인천신현고등학교 교사 이두영)

창의 · 인성수업에 도전하는 선생님께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교장 이 범 응

I. 창의 · 인성 교육에 대한 '도전'

원고 주제를 보면 ‘도전’이란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전’이란 말은 중요한 일을 시작하며 결의를 다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창의 · 인성 교육에 도전이란 말이 적절한가? 지금 이 시기가 창의 · 인성 교육의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도전’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서는 직제 개편을 하면서 ‘창의인성교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창의 · 인성 교육 추진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창의 · 인성 교육은 시대적 요구이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와 미국의 애플사가 서로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4월). 세계 굴지의 두 회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 했다며 맞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모방형 인재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서는 국제 사회에서 소외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어울릴 줄 아는 인성 교육의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II. 창의 · 인성 교육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문제들

세계가 놀라는 우리의 경제 성장 원동력은 ‘교육’입니다. 이 점에 있어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학교가 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다시 한 번 국가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창의 · 인성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의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개념의 모호성 : 어떤 정책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용도 선정할 수 있고 방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창의 · 인성’ 교육의 개념이 혼란스럽습니다. 개념이 방대하다보니 얼른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선생님마다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기도 합니다. ‘창의 · 인성’이란 무엇인가? ‘창의 · 인성’을 왜 하나로 묶었나? ‘동시에 하라는 것인가? 분리해서 하라는 것인가?’ 이 기본적인 물음에 공통 인식이 부족합니다.

학습량의 과다 : 지식 정보 사회로 발전하면서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 교과서 분량이 자꾸 많아집니다. 선생님들은 가르쳐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수업을 참관하다 보면 40(45)분 수업 안

에 수업이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다한 학습량을 소화하려니 결과 중심의 설명식 수업이 많습니다. 언제 창의와 인성을 키울지 걱정입니다.

피동적 학습 :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강조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자기 주도적 수업은 학생 중심 수업이며, 과정을 중시하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학습하라고 해도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학



습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애써 생각할 필요 없이 선생님의 설명만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 :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교육의 문제는 ‘아는 것’에 그치는 학습에 관한 것입니다. 체험 활동을 강조하지만 그 것마저 형식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아는 대로 실천하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방치하기에는 상황이 급박합니다.

재미없는 공부 :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한눈을 팔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는 수업 중에 아예 잠을 자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학원이 더 재미있고 잘 가르친다.’는 말까지 나오니 황당한 일입니다. 학교와 학원은 존재 이유가 다른데, 사회는 시험 성적 올리기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시험 성적 올리기에 전력을 기울인다면, 학교는 정말 재미와 즐거움이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평가와 학력 : 평가는 본래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는 속성상 결과를 중시하는 수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열화 될 우려가 큽니다. 시험을 보고나면 학생들끼리 별씨 ‘누가 몇 등’이라며 서열을 매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 반복, 문제 풀이가 높은 점수를 받는데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득한 성취가 진정한 (본질적인) 학력일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III. 공동으로 인식해야 할 창의·인성 교육

위와 같이 창의·인성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이제 창의·인성 교육을 위해 뜻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1. 교육과정 전 영역에서의 창의·인성 교육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기초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초 능력은 독·서·산의 범위를 넘어 컴퓨터 사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외국어 사용 능력, 탐구 능력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결합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미래 사회는 개인의 자유, 평등, 인권이 보장되고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어울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배려와 나눔을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과정 구성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구성 방침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입니다.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성 교육을 특정 교과 시간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 영역에 걸쳐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일부 교과에서 강조하던 창의·인성 교육을 전 교과 영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2. 새로운 가치 창출과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해 「창의·인성 교육 기본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창의와 배려가 조화를 이룬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창의·인성 교육의 주요 추진 내용들은 이 기본 방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안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정의는 간단하면서도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개념 정의에 공통 인식을 갖고 출발점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 당국은 가시적인 용어로 개념을 명료화하고, 선생님들은 이에 대해 공통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의·인성 교육의 대상은 영재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수한 학생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창의와 인성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일부 교과에 국한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가정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창의’가 강조되는 수업이 있고, ‘인성’이 더 강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실시해보자는 것입니다.

IV. 창의·인성 교육의 문제와 새로운 접근

1. ‘창의·인성’의 의미에 편안하게 다가서는 분위기 조성

학생들은 ‘창의’라는 말을 매우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꽤 괜찮은 발견이나 발명’으로 생각합니다. 수준을 높게 생각하면 도전하는 것이 겁이 날 것입니다. 어떤 사



람은 ‘엉뚱한 발상’이라고 정의하지만 ‘엉뚱한 발상’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 시간, 매 발문마다 ‘엉뚱한 발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창의’의 의미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다른 생각’ ‘자기 나름의 생각’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발전하여 훌륭한 아이디어로 발전하는 것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생각을 펼치게 되면 수업의 모습은 크게 변할 것입니다.

인성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성이란 본래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행동 특성’을 말합니다. 이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체화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감이 약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구체화하여 지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학생들도 행동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니 인성 교육은 방향을 잃고 행동으로 실천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다가설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2.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는 수업 활동

창의·인성 교육에서는 ‘끄집어내는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끌어내자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이제까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넣어주려



고 노력해왔습니다.

어떤 교실에서의 수업의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들으려고 애씁니다. 효과적인 설명과 피동적인 청취가 이어집니다. 얼핏 보면 집중력이 높고 좋아 보이는 수업 장면입니다. 이것이 집어넣는 수업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수업 방법으로는 창의·인성 교육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의·인성을 기르기 위해 방법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방법을 안내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방향을 전환시켜주고,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구해야 합니다. 활발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며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창의·인성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끄집어내는 교육'입니다.

3. 과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 의지

수업 초기 동기 유발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의 준비 상태가 수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기 유발은 적극적인 학습 의지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가치(지적)를 혼란시키고, 궁금증(호기심)을

야기하고, 도전 의지 등을 끄집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창의·인성 수업 공개가 많아졌습니다. 교원들 간의 수업 공개도 있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업 공개도 있습니다. 수업 후에는 진지한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동기 유발이 의도한대로 안 됩니다." 동기 유발을 하고 학습 문제를 인식하는 데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40분 수업 중에 10분 이상을 동기를 유발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시간 배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습 문제 도출 과정에서 '선생님, 그걸 보니…를 공부할 것 같습니다.' 라며 선생님의 눈치를 살핍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려는 공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생각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선생님의 생각을 끌어내려는 역현상이 벌어집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인 학습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수업 초기에 수업 열기로 와자지껄한 교실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수업의 반은 성공입니다. 선생님께서도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4. 의문을 질문으로 표출하며 호기심 총족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문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의문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질문입니다. 어떤 심리적 요인에 의해 의문이 지속적으로 억압되면 창의력을 자랄 수 없습니다. 수업 중에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습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해보라고 하면 낱말의 의미를 묻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2011년 5월)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한국인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강의실 뒷자리에 앉고, 교수의 권위를 절대 수용하며,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길들여진 수업 문화의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질문을 잘하는 아이'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의 특성은 다릅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호기심과 흥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은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속 듣기만 하는 공부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소극적으로 듣기만 해서는 창의성이 길러지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으려면 많은 질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낱말 의미를 묻는 수준을 확대하여 학습 방법, 학습 내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질문하는 방법을 지도하여 호기심을 촉촉시킬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5. 틀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창의성을 발휘해가는 학생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틀려도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랬다고 하여 학생들이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자신의 말이 틀릴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발문에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일은 더 나은 실수를 하자.' (Let's make better mistakes tomorrow.)

샌프란시스코 트위터 본사 사무실에는 이런 표어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실수를 해도 좋으니 자유롭게 생각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를 겪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에게 정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발문을 유심히 분석해보면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취 정도를 확인하거나, 다음 단계 발문을 위해 정답을 요구하는 발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1문 1답이나 퀴즈식으로 발문하고 응답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게 하는 발문이 늘어나야 합니다.

학생들은 실수를 했을 경우, 선생님보다 친구들의 반응에 더욱 신경이 쓰일지도 모릅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실수를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틀리면 친구들이 웃을 텐데.' 이런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틀린 답이나 엉뚱한 생각을 말하면 이곳저곳에서 킥킥거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학생들이 '틀리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틀리고, 다시 도전하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6. 창의 · 인성을 자극하는 말의 선정과 사용

수업의 대부분은 교사, 학생 간의 상호 작용으로 구성됩니다. 학생들은 언어에 의해 자극을 받으며 생각을 키워갑니다. 학생들의 창의와 인성 함양을 위하여 권장해야 할 말과 자제해야 할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의도적인 격려의 말에 힘을 얻어 왕성한 학습 의욕을 나타냅니다.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무심코 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여 위축되기도 합니다. 학생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언어를 구상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생각이야."

"음, 그래? 재미있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다니. 대단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틀려도 괜찮아."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바로 콜럼버스 생각이야."

"좋은 질문이야, 그건 나도 궁금한데."

"천천히 생각해 봐. 넌 할 수 있어."

"네가 해낼 줄 알았다."

"이렇게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언어를 학생들끼리도 자주 사용하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도대체 입을 떼지 않는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북돋아 주고, 마음을 연다면 교실은 활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7. 가르칠 내용과 학습 활동의 선정

수업실기 대회 등 준비된 수업을 보면 40분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초과의 주요 원인은 학습 활동 과제를 많이 잡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교과서에 실린 학습 내용 요소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시간을 고려하여 알맞은 학습량을 잘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화해내기 힘들만큼 많은 학습 활동을 선정해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습 활동 과제를 줄이고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업을 보면서 소집단 활동이 ‘필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 문제를 결정하고, 학습 활동을 정해놓고 나면 으레 모둠 활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둠 활동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을 연습하거나 패널에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집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결정하는 일이 부족합니다. 모둠 활동을 하고 난 후에는 보통 5~6조가 발표를 합니다. 여러 조가 발표를 하려니 발표 내용에 대한 토의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수업을 하려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준비가 안 된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창의적인’, ‘자기 주도적

인’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학습 활동 과제를 정선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늘여주어야 합니다.

8.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평가

수업 방법은 평가 방법에 따라 크게 변하여 왔습니다. 교육 방법이 변하면 당연히 평가의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평가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창의·인성 교육은 옛날 방식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 문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신뢰도 확보와 관련이 깊습니다. 나중에 제기될 수 있는 이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답이 확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답이 확실한 선택형 문항으로도 창의·인성 능력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습니다. 이러한 평가 체제 때문에 선생님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창의·인성을 위해서는 평가 방법이 바뀌어야 하는 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창의·인성 평가를 위해서는 신뢰도보다 타당도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사가 제시한 답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펼쳐낼 수(끌어낼 수) 있는 문항이 늘어야 합니다.

다양한 답이 가능한 문제를 출제하면 채점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이의 제기가 많아질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그런데 창의·인성 교육은 본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기에 평가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서술식 평가 문항을 늘여가는 추세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필요함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 글은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모습에 초점이 맞추었습니다. 여기에 제기된 문제들은 이미 선생님들께서 인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창의·인성 교육은 이 시대의 선생님들께 대두된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창의·인성 능력을 키운 학생들은 10년, 20년 후 곳곳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 학생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의·인성 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선도적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작은 의미를 놓치지 않는 수업을 꿈꾸며

인천신송초등학교
교사 남유미

O 이야기 하나 창의 · 인성수업에 대한 공감 나누기

우리가 여즉 해오던 수업중에서 창의 · 인성수업이 아니었던 것이 있었나?
열린교육, 지덕체, 효교육, 글로벌 인재양성교육… 중얼 중얼

지금 대한민국 현실사회에서 진정한 창의 · 인성수업이 가능한가? 사회문화적인 전통 및 교육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거지.
가족이기주의, 무한 경쟁사회, 일제학력고사로 출세우기 속에서…

언제나 교육이론과 교육현장을 잇는 가교역할은 힘들고 고되어라.
추상적인 창의 · 인성요소를 어떻게 수업안에서 구현하라고. 사고의 확장,
사고의 수렴, 유추 은유적 사고, 개방성, … 중얼중얼



14

O 이야기 둘 우리 자신의 전문성을 믿고 통합하고 추려내기

다음은 국어과 차시 통합의 예이다. 우리들은 교육과정을 과감하게 요리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믿어라, 우리 자신의 전문성을… 그리고 창의적으로 통합, 삭제, 추가해보자.

5학년 1학기 4

주고받는 마음(듣기 · 말하기 · 쓰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창의 · 인성 요소와 차시 통합의 예는 다음과 같다.

듣기 · 말하기 · 쓰기 성취기준

듣기 (3)

온라인 대화를 일상대화와 비교하여 이해한다.

내용요소

-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 온라인 대화와 일상 대화의 공통점과 차이 점 파악하기
-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

창의 · 인성요소

비판적사고 / 논리 분석적 사고 / 배려 / 책임

6차시 중에서 2~3 차시를 통합해 보자 (인성요소 중심 창의 수업)

〈교수학습문제〉

- 온라인에서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알기
- 온라인 대화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점 알기

〈창의 · 인성 수업활동 아이디어〉

- 온라인 세상에서의 경험나누기, 인터넷 언어 분석 유목화하기
- 국가 구성원으로서 민족언어에 대한 반성과 다짐 활동하기

(언어적 민감성 – 듣기에서의 공감적 이해, 감성적 이해

논리적 분석 유목화 능력 – 현실 진단 및 분석 유목화에 대한 아이디어 생성

연출감수성 – 책임감, 공동체 의식

공감소통하기 – 타인 이해, 이타심)

5학년 1학기 4, 주고받는 마음(읽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창의·인성 요소와 차시 통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읽기 성취기준
읽기 (3) 다양한 서평을 읽고 서평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한다.
내용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평의 특성 이해하기 • 하나의 책에 대한 여러 서평 비교하기

창의·인성요소
비판적사고 / 감수성 / 다양성, 개방성, 복합적 성격 / 독창성

6차시 중에서 5~6 차시를 통합해 보자 (창의 요소 중심 인성수업)

〈교수학습문제〉

- 같은 책에 대한 다양한 서평비교하기
- 서평을 읽고 책에 대하여 짐작하기
- 서평을 읽고 그 책을 읽고 싶은지 생각하기

〈창의·인성 수업활동 아이디어〉

- 책에 대한 가치 평가활동(밥 같은책, 간식같은책, 불량시품 같은책)
- 서평비교활동
- 서평쓰기 활동하기
(비판적사고, 논리 분석적 사고, 다양성, 개방성, 복합적 성격, 배려와 책임, 독창성, 반성적 사고)

○ 이야기 셋 국어과 창의·인성 수업 엿보기

수업 하나, 인성요소 중심 창의수업 “인터넷 세상 속의 나의 다짐”

활동 1) 인터넷 세상진단

인터넷 세상에서 경험한 좋은 기억, 나쁜 기억 포스트잇에 적어 모둠활동판에 붙이고 발표하기

활동 2) 인터넷세상 딴세상?

인터넷 언어의 뜻을 알아보고 어떤 필요에 의해 생겼는지 토론하기

활동 3) 앞으로 나는

사라져가는 우리말의 뜻을 맞혀보는 활동과 지식채널 e “And you?”를 보면서 느낀점 이야기하기



수업 둘, 창의 요소 중심 인성수업 “책의 가치를 매겨보는 서평쓰기”

활동 1) 밥 같은 책 간식 같은 책, 불량식품 같은 책

자신이 읽었던 책을 포스트잇에 적은 후 모둠활동판에 밥 같은 책, 간식 같은 책, 불량식품 같은 책으로 분류해서 붙여 보고 왜 그렇게 나누었는지 토론 발표하기

활동 2) 다양한 서평, 정체를 밝혀라

교과서에 나온 다양한 서평들을 읽고 왜 같은 책에 대하여 서평이 이렇게 다른지 생각해 보고 발표하기

활동 3) “황금 열쇠상” 문학상의 심사위원이 되어

활동 1의 책 목록 중에서 최고의 문학상을 줄 만한 책을 한권 골라서 심사평(서평)을 쓰도록 한다. 문학상의 심사위원의 서평은 모든 사람들이 수상에 대하여 수긍 할 수 있도록 책의 가치를 서술해야 함을 주지시키고 활동하도록 한다.



16

창의 · 인성 수업 장면

○ 이야기 넷 국어과 창의 · 인성수업에서 의미 찾기

수업 하나, 인성요소 중심 창의수업 “인터넷 세상 속의 나의 다짐”

교사가 묻는다. “사라져가는 우리말 뜻을 알고 있나요? 음전, 해우소, 헛귀, 명징...” 아동들은 음전의 뜻을 묻는 교사의 질문에 음주운전의 줄임말이라고 진지하게 대답한다. “음전이란 단어를 선생님은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음주운전의 줄임말로 알고 있다면 이제 선생님 다음세대에서는 이 단어는 사라지고 말겠지요?”라고 하면서 지식채널 e 의 “And you?”라는 영상을 보여준다. (영상의 내용: 세계공용어로 정해진 9개의 언어 이외에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많은 소수민족언어들이 하루에 10개씩이나 사라지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

‘우리 아동들의 머리와 가슴 속, 이 수업 중에 어떤일이 벌어졌는지 놀라지 마세요.’

음전의 뜻을 전혀 몰랐던 자신의 상황과 영상에서 본 충격적인 사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아동들은 숙연해진다. “이 지구상에서 그 언어를 알고 있던 단 한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그 언어가 사라져 가는구나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아름답고 가치있는 많은 말들이 우리가 쓰지 않으면 사라져 가겠구나”라고 수업에 대한 3분 묵상을 발표한 우리 아이들, 수업 후 학급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감지되었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 언어정화운동과 선플운동을 벌여서 교사인 나를 감동시켰다.



학급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언어정화 운동과 선플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아이들

수업 둘, 창의 요소 중심 인성수업 “책의 가치를 매겨보는 서평쓰기”

자기가 읽은 책의 제목을 적은 포스트잇을 밥 같은 책, 간식 같은 책, 불량식품 같은 책으로 모둠활동판에 나누어 붙여 본다. 한 모둠이 구분된 목록을 발표하면 다른 모둠에서 분류된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발표한다. 모둠별 토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밥 같은 책, 간식 같은 책, 불량식품 같은 책으로 나누어 보도록 한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밥, 간식, 불량식품이라고 책의 가치를 매겼는지 메타적 성찰을 해보게 한다. 이 작동원리가 가치를 매기는 활동임을 주지시키고 사람마다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다름을 알게 한다.

‘우리 아동들의 머리와 가슴 속, 이 수업 중에 어떤일이 벌어졌는지 놀라지 마세요.’

서평이란 책의 가치를 매기는 활동으로 독후감상문과 다르다는 것을 이 활동을 통해 확실히 이해한다. 한 아동은 가치를 매기는 또 다른 작동원리를 제안한다. 밥, 간식, 불량식품 대신에 심장, 간, 뚱으로 하자고… 그 이유는 생명과 직결된 심장같이 우리 몸에 소중한 책이 있는가 하면,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잘라 내도 살 수 있는 간 같은 책도 있고, 반드시 우리 몸에서 배출해야 하는 뚱 같은 책이 있다고 하여 나를 탄복시킨다.

우리 아이들은 이 수업을 통하여 가치를 매긴다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를 활용하여 서평을 썼다.

문학상의 심사위원이 되어 책을 선정하는 서평쓰기 활동은 비판적으로 자신이 쓴 서평을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썼는가 자기 평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이었다.



활동결과물

선정된 책의 제목:	상상력(오재호)
선정 이유:	동화 책 '아빠가 저를 다른 경력을 이룬다'는 책이 난 출신으로 저자성이 향촌여인에게 모금을 맡고 흘러버렸을 때 두 아동들에게 쓰 떤 편지에 아들을 보다는 40년 이상의 아버들에게 속전례를 주고 싶다 특히 다른 성별을 많이 지나가 있는 이 날은 특별히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그 토크는 꽤 활발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획, 이색을 검증, 나침반 예술 경작품들의 퍼포먼스 역할 및 예술 그림은 그리지 않는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물을 표기, 간단하고 예술느낌이 나서 사람들과 능력을 '자호자기' 좋았으며 또 책 안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빛을 사용으로 페인트를 그어서 높이 들어 올게 헤리티지에 특가처럼 눈길이 걸려 되게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인트는 어떤 그림들이 어려운 물질을 넣기 쉽도록 밑에 설명해 아주 청楚했습니다.	
좋은 서평	

“인성과 창의성을 위한 가장 좋은 재료인 내러티브(서사, 이야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국어과 창의 · 인성수업, 참으로 매력적인 도전입니다.”

내 아바타에 각이 들어왔어요

– 미술과 수업 산출물을 이용한 창의 · 인성 수업사례 –

인천계산초등학교
교사 장 혁

1. 들어가며

2010년 후반 같은 학교 동료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한 창의 · 인성 수학교과연구회. 의욕적인 시작이었지만 창의와 인성을 한 차시 수업에 벼무려낸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하는 회의가 들었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창의요소와 인성요소를 결합한 수업안을 하나하나 작성하게 되었고, 또 다시 2011년에도 교과연구회를 계속 꾸려 나가게 되었지요. 교과연구회 이름은 보석샘물 창의 · 인성 수학교과연구회입니다. 보석 같은 샘물처럼 수학에는 마르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수업 중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창의 · 인성수업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8

2. 교과서 안으로 들어가기

제가 소개할 수업은 4학년 1학기 3단원 각도의 4차시입니다.

1차시

- 각의 크기 비교하기

5차시

-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 임을 알기

2차시

- 각도의 뜻을 알고 각도기를 이용해 크기 재기

6차시

- 사각형 네 각의 크기의 합이 360° 임을 알기

3차시

- 각도기를 활용하여 각도가 주어진 각을 그리기

7차시

- 단원 학습 내용 확인

4차시

- 각도를 어림하고 실제로 재어 비교하기
- 각도의 합과 차 구하기

8차시

- 직각삼각형의 직각이 아닌 두 각의 합이 90° 임을 알기
- 심화학습

전 차시 학습을 통해 각의 크기에 대한 직접 비교, 각도의 뜻 알기, 주어진 각도에 따른 각 그리기를 학습하였습니다. 본 차시에서는 각도를 어림하여 보고 실제로 재어 비교하는 활동과 각도의 합과 차를 구하는 연산을 익히게 됩니다.

3. 창의·인성 수업을 위한 재구성

〈미술 3, 4학년 2~3. 예술적 경험을 미술로〉 차시의 활동 결과물을 이용하여 각도의 어림과 재어보기, 합과 차 구하기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미술작품이기에 흥미와 몰입을 이끌어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수업과 창의·인성 수업의 비교〉



아이들의 손을 다치게 하는 위험한 기준 작품(할핀 이용)

손 다칠 위험도 없고 외관상 깔끔한 개선 작품(아일렛 이용)

미술작품을 개선한 이유는 각도를 본뜨기 위해서는 점을 찍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일렛을 이용하면 구멍을 이용하여 인형의 동작을 쉽게 본뜰 수 있고, 정확한 각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4. 수업 속으로 들어가기

문제인식

동기유발
학습문제확인

아바타를 통한 동기유발

- 각의 변화 살피며 각의 크기 관찰하기
- 전시학습 상기 – 각의 크기 비교, 각의 크기 재기

학습문제 확인

- 각도를 어림하고 실제로 재어보기
- 각도의 합과 차를 계산하기
- 각도의 합과 차를 계산하기

문제탐구

활동1
활동2

적용발견

활동3

활동1 : 각도 어림하고 실제로 재어보기

- 아바타 고정하고 팔다리의 각도 본 뜨기
- 어림하고 재어보기

활동2 : 각도의 합과 차 구하는 방법 알기

-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의 방법 적용
- 각도의 합과 차를 계산하기

활동3 : 각도의 합과 차 적용하기

- 짹꽁의 인형 팔의 각도와 내 인형 팔의 각도 이용하여 합과 차 계산하기
- 정답 확인하기

정리평가

활동지

- 각도 어림하고 실제로 확인하기

- 각도의 합과 차

〈수업의 흐름〉

20



아바타 고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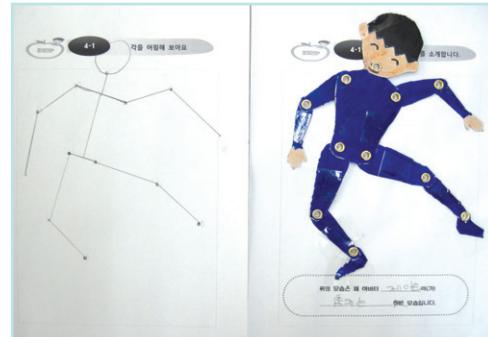
위의 모습은 제 아바타 제이슨이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위의 모습은 제 아바타 초롱이가 점프하는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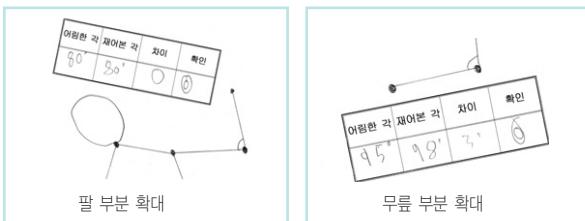
아바타를 이용하여 각 분뜨기



고정된 아바타 아래에 먹지와 활동지를 순서대로 깔고 아일렛의 구멍을 통해 점을 찍은 후 점과 점을 연결합니다. 졸라맨 형태의 그림이 나오지요.

수업에 활용하는 미술작품을 ‘아바타’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단순한 인형이 아닌 자신과 일체가 되는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몰입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근감을 주기 위해 이름도 붙여보게 하였습니다. ‘내 아바타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 ‘무슨 동작을 만들까?’ 생각하다보면 개성있는 이름, 다른 동작이 나오게 되니 창의적 요소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성적 요소도 기를 수 있겠지요.

각도 어림하고 재어보기



아바타를 이용한 도형을 보니 수많은 각이 보이지요. 그 중 팔과 다리의 관절부분의 각을 어림하고 재어봅니다. 활동이 빨리 끝난 친구들은 다른 부분의 각을 어림하고 재어볼 수도 있습니다.

활동3

친구의 아버티 원팔 139° 내 아버티의 원팔 55°	친구의 아버티 오른팔 128° 내 아버티의 오른팔 150°
<합> 식 : $139^{\circ} + 55^{\circ} = 194^{\circ}$ 답 : 194°	<합> 식 : $128^{\circ} + 150^{\circ} = 278^{\circ}$ 답 : 278°
<차> 식 : $139^{\circ} - 55^{\circ} = 84^{\circ}$ 답 : 84°	<차> 식 : $150^{\circ} - 128^{\circ} = 22^{\circ}$ 답 : 22°

〈활동1〉을 통해 측정한 관절들의 각도를 이용해 합과 차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짹꿍과 협력하여 서로의 결과를 확인하고 도와주도록 유도하여 또래교수의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나와는 다른 짹꿍의 아버티와 각도를 접하게 되고 협력하여 합과 차를 구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인성이 자라게 되겠지요.



5. 본 수업이 지향하는 창의·인성 요소

조작적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1

미술과의 관절인형을 도입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음

몰입을 통한 문제 해결

2

자신이 제작한 관절인형을 조작함으로써 학습 내용에 대해 몰입할 수 있음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3

짝꿍과의 문제해결을 통해 정직, 약속, 배려의 인성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함

6. 창의와 인성이 만나는 교육의 꽃 피우기를

제가 소개한 수업이 창의·인성 수업의 전부는 아닙니다.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지요. 수업내용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학습목표에 도달하려는 도전감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수업, 그 과정 속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라면 그것이 바로 창의·인성 수업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내용에 맞는 창의·인성 요소를 선정하여 배치하는 교사의 섬세함이 필요하겠지요.

창의·인성의 다양한 요소를 차시마다 적절히 안배하는 수업을 꾸준히 구상하고 실천해가다보면 창의와 인성이 만나 교육의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아이들이 머리와 가슴 속에서 말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수학수업을 꿈꾸며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김경화

이야기 하나 창의 · 인성수업에 대한 공감 나누기



22

이야기 둘 창의 · 인성 수학교과연구회 및 수학동아리 운영과정

모임명	창의 · 인성교과연구회 Fun Fun 수학회	창의오디세이 수학 동아리
구성원	수학교사 6명(본교 5명, 타교 1명)	본교 3학년 학생 14명
운영과정 및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간 : 2011. 4. 1. ~ 2012. 2. 29. 2011. 3~4월 : 연구회 조직 및 선정 2011. 4월~7월 :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및 학습 자료 제작 2011. 8월 : 개발된 지도안 발표 2011. 8월~11월 : 교수학습 지도안 교실 수업 적용 및 수정, 보완 2011. 12월 : 교과연구회 자료집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간 : 2011.3.15. ~ 2011. 12. 31. 2011. 3월 : 연구회 조직 및 선정 2011. 4월~5월 : 동아리의 이해 교육, 자료 수집 및 외부 동아리 활동 2011. 6월~7월 : 동아리 활동 자료 정리 및 수학발명품 구상 및 제작 2011. 8월~10월 : 수학발명품 창의산 출물 제작 및 동아리 활동 보고회 2011. 11월 : 동아리활동 포트폴리오 완성

창의 · 인성 수학교과연구회(교사) 및
창의오디세이 수학동아리(학생) 구성



인천국제공항 교통 센터
- 자기부상열차에서 찾은 수학과 물리



부천 아인스 월드
- 세계건축물 속에서 찾아보는 수학



부평역사박물관
- 자전거 바퀴에서 찾아낸 수학

이야기 셋

수학과 창의 · 인성수업 옛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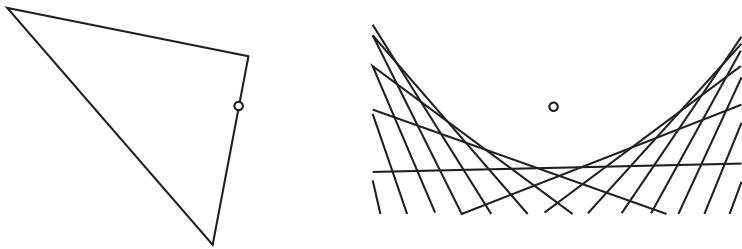
수학과 교수 · 학습 지도안

학습단원	IV. 이차함수 1. 이차함수와 그래프(1) 2. 이차함수 $y=ax^2$ 의 그래프		일시 2011. 5. 25 (수) 3교시	
			차시 5/16	
			대상 3학년 1반 40명	
학습목표	1. 이차함수 $y=ax^2$ 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2. 포물선의 뜻을 알고, 포물선을 실생활에 활용한 예를 말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사 ppt, 개별 활동지, 삼각자	학생 교과서, 노트, 필기구, 모눈종이, 기름종이, 자		
에너지교육 영역	-에너지를 주제로 하여 포물선을 실생활에 활용한 예를 발표하기	창의 · 인성 요소 P121 2. 태양에너지 태양열 조리기 만들기	발 표 : 논리 · 분석적사고, 확산적사고 발표준비 : 의사소통, 협동, 배려 토 론 : 개방성, 사고의 수렴	
「에너지와 우리 생활」 책자활용				
학습 단계	수업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분)	동기 유발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분위기 조성(인사 및 출석확인), 교과서와 노트 준비 ▶ 과제 점검 ▶ 선수학습 내용 확인:의 그래프 ▶ 본시 학습목표 확인 ▶ 흥미 유발-생활 속의 포물선 찾기 	* 동기유발 ppt 생활 속의 포물선	
		교사 활동	학생 활동	
전개 (25분)	설명 개별 활동 전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학습> 교과서를 $y=ax^2$의 그래프의 성질을 서로 이야기 해보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 (문제5)를 제시하여 희망학생 일어서서 설명하게 한다. - 발표자에게 가산점 부여 - 필요 시 보충설명을 한다. - 각자 확인하도록 한다. ▶ 에너지교육영역 ▶ 이차함수 포물선이 실생활에 쓰이는 예와 그 중 에너지 관련된 예를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를 보면서 답을 써보고 서로 비교해본다 ▶ 친구의 설명에 집중한다. - 발표자 가산점 부여(수행평가) ▶ 선생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며, 필요한 부분은 필기 ▶ 바른 자세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예가 있으면 발표에 참여 	<p>ppt 창의 · 인성요소: 협동성, 배려심, 의사소통</p> <p>ppt * 에너지교육영역 -에너지와 우리생활 p121태양열 조리기</p> <p>종이접기와 포물선 - 개별 활동지 창의 · 인성요소 : 협동성, 창의성</p>
정리 및 평가 (10분)	내용 정리 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정리 및 확인-형성평가 ▶ 모둠별 과제 선택 및 자기주도 학습활동(수준별 선택과제) ▶ 차시 과제, 준비물 제시 	<p>ppt -형성평가지 -수준별 과제</p>	

교수 · 학습 자료

〈 종이접기와 포물선 〉

- ① 직사각형 모양의 기름종이를 준비하여 내부에 점을 찍는다.
- ② 가로선의 둘레에 간격이 일정하게 점을 찍은 후 ①에서 찍은 내부의 점과 일치시켜 접으면 균등한 간격의 선을 볼 수 있다.
- ③ 약간의 간격을 두어 이 가로선을 계속 접어 점이 가로선 위에 놓이는 과정을 되풀이하면 아래와 같은 자국이 생기고 이 자국의 외곽선으로 포물선이 보인다.



24

형 성 평 가

3학년 ()반 ()번 이름:

1. 이차함수 $y=x^2$ 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제3, 4사분면을 지난다.
- ② 치역은 $\{y | y \geq 0\}$ 이다.
- ③ $y=-x^2$ 과 y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 ④ $x > 0$ 일 때, 의 x 값이 증가하면 의 y 값은 감소한다.
- 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x 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2. 포물선이 실생활에 쓰이는 예가 아닌 것은?

- ① 태양열 조리기
- ② 파라볼라 안테나
- ③ 아르키메데스의 거울
- ④ 미국의 국회의사당 조각홀
- ⑤ 농구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그리는 궤도

3. 오늘 창의 · 인성 수업에 대한 나의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

4. 오늘 수업에서 가장 재밌었던 내용이나 느낀 소감을 쓰시오.





손으로 만져보는 교구활용 수학
종이접기를 통한 포물선 그리기



학생중심활동으로 개방형문제를
만들어 토론하는 진지한 수업 장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생활수학의
접목으로 수학적 호기심과 흥미 유발

정규수업 시간을 이용한 창의·인성수업 장면

이야기 넷 수학과 창의·인성수업에서 의미 찾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암기 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변화를 추구하였다. 각 학교마다 창의·인성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과 ‘창의·인성수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나 또한 변화하는 교실수업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고민하던 중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되새기며 작년 겨울방학 때 창의·인성연수를 통해 나름 준비는 하였으나 막상 교실수업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좀 더 공부하고자 창의·인성 교과연구회와 창의오디세이 동아리를 조직하여 창의·인성수업에 대해 열정을 갖고 있었으나 막상 학교생활에 쫓기다보니 제대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선생님들을 위해 창의·인성수업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써 달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 부끄럽지만 책임감 하나는 투철한 나기에 용기를 내야했다. 부족한 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수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쉽게 생각하면 평소에 우리가 해왔던 수업이 모두 창의·인성수업입니다. 단지 새로운 용어로 등장함에 새롭게 느껴질 뿐입니다. 수학수업에서 모둠별로 교구를 많이 활용하다 보면 협동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활동을 많이 하는 발표수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표현력과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가끔 글을 쓰다보면 상상력과 창의성, 유창성이 길러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수행평가에 반영하다보면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으로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평가의 공정성 까지 확보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수업시간에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좀 더 응용하여 출제를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열심히 따라옵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제도에 회의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창의·인성수업은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업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인 마인드가 창의·인성 교육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단히 연구하고 변화하는 선생님은 아름답습니다. 저도 아름다운 선생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학생을 수업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창의 · 인성수업

인천마장초등학교
교사 김정아

26

사회과는 창의 · 인성수업을 하는데 효과적인 교과라고 생각됩니다. 단위 시간에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을 보다 창의적인 활동으로, 또는 인성교육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사회과의 목표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5학년의 영역은 ‘역사’입니다. 역사학습을 통하여 역사적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우리 조상들의 창의성과 인성까지도 함께 학습에 접목시킨다면 우리 학생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수업에서는 우선적으로 사회과 학습에 접목 가능한 창의 · 인성 요소를 단원의 차시별로 추출하고 제재 유형별 학습 과제에 따른 적절한 수업모형을 선정하여 단원의 내용을 재구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창의인성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창의 · 인성수업을 접목한 사회 수업은 혼자서 학습하는 방법보다 모둠별로 학습하게 되므로 사회성 발달에도 기여하고 발표력과 자기 표현력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교과학습목표와 창의 · 인성학습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적합한 수업모형의 적용과 수업 중 사회과 기능 학습의 활용을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우리 조상들의 창의 · 인성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역사 흐름 속의 현재에 맞게 발전시키며 내면화하여 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살아있는 사회 학습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수업을 구안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야기 하나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수업을 위해

- 단위 시간에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을 보다 창의적인 활동으로, 또는 인성교육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1. 교과 고유의 독자적인 교육내용
+ 창의성 교육 요소
+ 인성 교육 요소

2. 창의성은 생각의 또 다른 습관입니다.

-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교사의 발문이 중요합니다.
- 창의 · 인성 수업을 위해 교사는 발문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3. 학생들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게 하였습니다.

-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창의 · 인성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유

첫째,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려면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해야만 한다.

둘째, 설명을 어떻게 좀 더 쉽게 할끼를 고민하게 되고 용어를 선택하게 된다.

셋째, 자신이 준비하면서 터득한 내용은 정리된 형태로 저장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어렵다고 쉽게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습관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 이런 과정이 쌓이게 되면 혼자 터득하고 설명하고 저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다음 단계의 지식 획득의 자양분으로 축적되게 된다.



이야기 둘 창의 · 인성수업을 위해

창의 · 인성수업의
기본 요소 개념을
교사가 먼저 익히
고 수업에 적용하
였습니다.

- 창의력은 훈련함으로써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므로 교수 · 학습과정에서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태도 등을 반영하여 의도된 학습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 함께 협력하는 수업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의성을 촉진하고 창의성을 발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능력으로서의 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야기 셋 학생을 수업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수업 활동

- 모둠의 이질적 구성으로 우수아와 부진아가 함께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두미의 역할을 부여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모둠 활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나' 보다는 '우리'가 똑똑하다!

- 모둠활동을 강조하였습니다.

2. 창의 · 인성 기법 활용

- 학습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업모형을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활발한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창의 · 인성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생각그물, 희망열거법, 연꽃기법, 스캠퍼, 아이디어 목마, 축사고, 매트릭스법, 카탈로그기법, SWOT, 개념해체적 대화, PMI, CPS, 납작한 나의 여행, 칠판편지, Role Play, Block Breaker, 창의 연극 등

3. 창의 · 인성 수업 적용

창의 · 인성요소를 추출하고 창의 · 인성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단원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학습목표는 교과학습목표와 창의·인성목표 두 가지를 설정하고 교과학습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 창의·인성목표가 달성을 될 수 있도록 구안하였습니다.
- 수업주제를 설정하고 창의·인성수업을 위한 수업모형과 창의

기법을 적용하여 수업안을 구안하였습니다.
 • 수업 과정 중에 학습하게 될 창의·인성 교육요소를 지도안 과정 중에 제시하여 창의·인성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의 재구성의 예

교과학습목표를 도달하면서 적용 가능한 창의·인성기법과 창의·인성요소를 재구성 계획에 삽입하여 의도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였 습니다.

단원명	제재	차시별 학습 활동	재구성 내용	차시	창의인성 요소 *창의기법	수업모형
① 선사 시대 사람들		선사 시대부터 통일 신라와 건국까지의 역사적 흐름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학습을 위한 사고의 도입 • 단원 활성화를 위한 사고의 활성화 • 단원학습 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의 주요 활동 및 조사 과제 - 장기 학습 과제 예시 - 탐구활동 해설 	1/18	약속 문제해결력	프로젝트수업 모형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전문가 협동학습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파악하기 •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 선사시대의 유물과 유적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토론 생활의 변화와 도구의 발달 관계 살펴보기 - STAD평가 	2~4 /18	사고의 확장 몰입 흥미 *창의기법 - 축사고	전문가 협동 학습 (JIGSAW Ⅲ) - STAD 적용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창의·인성수업안의 작성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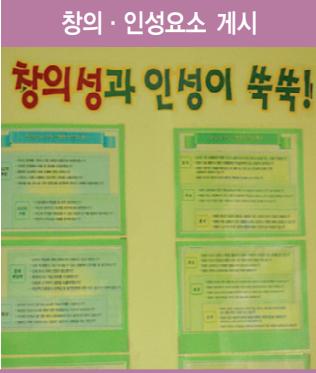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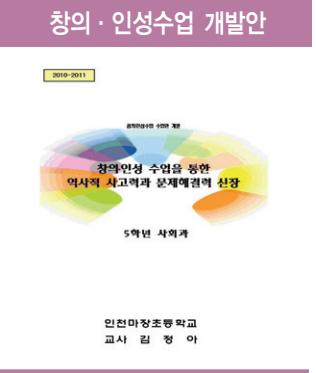
단원	1. 하나 된 겨레 ⑤ 통일 신라와 발해 사람들	차시	17 / 18
학습주제	통일 신라와 발해 사람들의 문화 이해하기		
학습목표	교과학습목표	통일 신라와 발해의 문화재를 통해 생활 모습을 탐구해 보고 그 가치를 찾아 발표할 수 있다	
	창의성 목표	다양한 탐구 방법을 모색해 봄으로써 창의적 사고와 자료 해석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인성 목표	모둠 토의를 통해 우리 민족의 창의·인성을 본받아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을 말할 수 있다.	

교수·학습전략	학습 과정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	탐구문제확인	가설설정	탐색	입증	일반화
		동영상 연표	연표	학습 활동 안내카드 모둠발표자료 PPT,포스트잇 토의판	신호등카드 PPT	동영상 연표 PPT
수업모형 및 창의·인성 요소	수업모형	창의성요소	창의기법	인성요소		
	탐구학습	사고의 확장, 호기심, 흥미, 몰입, 사고의수렴, 문제해결력, 개방성,	축사고	배려, 독립성, 정직, 약속, 책임, 소도덕적판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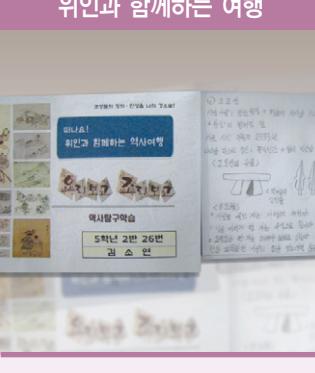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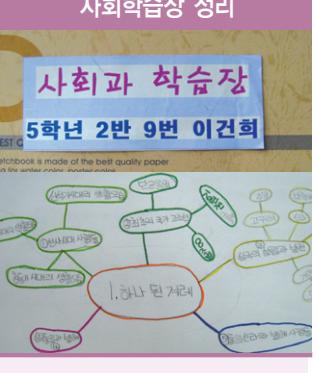


4. 창의·인성수업을 위한 특색 활동

- 창의·인성수업의 이해를 위하여

동료교사와의 협의 	다양한 사이트 탐색활동 	창의·인성요소 게시 	창의·인성수업 개발안  <p>2010-2011 창의·인성 수업을 통한 역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 5학년 사회과 인천마장초등학교 교사 김정아</p>
<p>도서 및 자료를 통해 아이디어를 꾸준히 수집하고 동료교사와의 정보교환을 통해 교과 활동에 적용</p>	<p>창의·인성 교육넷의 창의기법과 수업안을 탐색하고 창의·인성수업에 적용</p>	<p>창의·인성요소를 교실에 게시하여 학생들도 요소를 알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음</p>	<p>학습에 대한 전문성 신장 및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2010- 2011 창의·인성 사회교과연구회 활동과 창의·인성사회과 수업안개발</p>

• 사회 교과 학습 관련 특색 활동

위인과 함께하는 여행  <p>▶ 위인전을 읽고 위인이 살았던 시대의 특징과 업적에 대한 생각 쓰기 활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위인의 창의성과 인성을 배우도록 하였음</p>	우리가 만드는 미니 박물관  <p>▶ 각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유적을 직접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창의성을 느끼도록 하였음</p>	역사지도로 역사를 한눈에  <p>▶ 역사지도를 시대순으로 전시함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였음.</p>	사회학습장 정리  <p>▶ 사회학습장을 활용하여 배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활동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음</p>
--	--	---	---



〈참고문헌〉

- 문용린(2010), 보고자료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창의인성교육의 기본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0),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내용·방법·평가체제 혁신방안
- 창의인성교과연구회(2010),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전체 워크숍 자료집,

〈사이트〉

창의·인성 교육넷 <http://www.crezone.net/index.do>

학생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역사수업 설계

신송중학교
교사 한 다 원

1. Config : 창의 · 인성수업 설계하기

창의 · 인성수업은 기존의 수업방법과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서부터 출발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가르치고 배워야 할 주제를 추려내고 주제별로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설정하는 일이다. 주제와 수업방법이 정해지면 학습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수 배정과 통합(블럭타임 등) 노력도 창의 · 인성 수업을 위해 필수적이다.

국사3 연간 수업 설계 예시

차시	대단원	주제	수업 방법	차시	대단원	주제	수업 방법
1	V.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건국	자료탐구(인터넷활용)	28	VIII. 주권 수호운동의 전개	명성황후를 일본 측에서 사해한 이유는?	토론식
2		조선의 통치제도	자료탐구(조사발표)	29~30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자료탐구(사료분석)
3		세종대왕	자료탐구(인물탐구)	31~32		을사조약 이후의 민족적 저항	토론식
4		민족 문화의 발달	자료탐구(조사발표)	33		간도와 독도 문제	자료탐구(사료분석)
5~6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	추체험(극화학습)	34		애국계몽운동의 유형	자료탐구(조사발표)
7		임진왜란의 배경 및 전개 과정	추체험(신문만들기)	35		경제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방법은?	토론식(패널)
8		임진왜란의 위인들	자료발표(조사발표)	36		단원 정리	설명식(강의)
9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 및 북벌운동	추체험(모의재판)	37		일제의 침략정책 변화	설명식(강의)
10		단원 정리	설명식(강의)	38~39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추체험(일기쓰기)
11	VI. 조선사회의 변동	봉당 정치의 전개	자료탐구(마인드맵)	40~41		일제의 경제 수탈	자료탐구(사료분석)
12		탕평책의 실시	자료탐구(인물학습)	42~43		3·1 운동	추체험(뉴스제작)
13		실학자들이 추구한 사회	추체험(실습학습)	44		대한민국 임시정부	토론식(패널)
14		세도정치의 폐단	자료탐구(사료분석)	45~46		무장 독립 전쟁	자료탐구(조사발표)
15~16		농민 봉기와 새로운 종교의 전파	추체험(방송+연극식)	47		애국지사들의 의거 활동	자료탐구(조사발표)
17		단원정리	설명식(강의)	48		민족 실력 양성 운동	자료탐구(조사발표)
18		홍선군의 개혁정책	자료탐구(인물학습)	49~50		1920년대 학생 운동	추체험적(극화학습)
19	VII. 개화와 자주운동	홍선군의 대외정책	추체험(UCC 제작)	51	IX. 민족의 독립운동	민족 문화 수호 운동	자료탐구(조사발표)
20~21		개화와 척사의 대립	자료탐구(사료분석)	52		항일문학과 친일문학	토론식
22		갑신정변	추체험(모의재판)	53		단원 정리	설명식(강의)
23~24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추체험(극화)	54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	설명식(강의)
25		시와 노래에 나타난 동학농민운동	추체험(실연)	55	X. 대한민국의 발전	6·25 전쟁	설명식(영상학습)
26		14개조정강, 폐정개혁안, 갑오개혁의 비교	자료탐구(사료분석)	56~57		4·19 혁명	토론식(강의+토론식)
27		단원정리	설명식(강의)	58~64		이하 생략	

2. Login : 창의 · 인성수업 엿보기

사례는 19세기 민란의 현장을 취재 보도 형식으로 재현해 보고, 당시 농민의 입장에서 일기를 작성하여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추체험적 수업모형을 적용한 것으로, 연간 수업 설계서의 15~16차시 수업에 해당한다. 창의성과 인성 요소를 조화롭게 발현시키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체험(토론, 발표, 실험, 실연 등 포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창의 · 인성수업이 이전의 수업과 다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주제 및 학습 목표 설정												
단원명	VI. 조선사회의 변동 2. 세도정치와 농민의 저항						대상	중3	시간	90분		
학습주제	농민 봉기와 새로운 종교의 전파						학습과목	국사				
교수학습 모형	추체험적 수업모형(방송식+연극식)						관련자료	KBS 역사스페셜(DVD) 방송 대본 양식				
학습목표	1. 19세기 농민들의 생활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 2. 세도 정치 시기에 널리 퍼진 종교의 공통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창의인성 지도요소	정교	민감	융통	독창	유창	상상	정직	약속	용서	배려	책임	소유
	○	○	○	○		○			○	○	○	

나. 교수 · 학습 과정 설계											
단계 (시간)	지도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유의점 및 자료	
도입 (15분)	• 동기유발 • 학습목표 제시	• 흥경래의 난을 분석한 역사드라마의 내용을 담은 영상 상영 1) • 학습개요와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KBS 역사스페셜 -최초공개 흥경래의 난, 진종일기	
전개 (65분)	• 추체험 선택1 (주제선택)	• ①, ② 중 선택하여 모둠활동 ① 세도정치의 폐단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방송 보도의 형태로 재현한다. 2) - 민란의 유형, 흥경래의 난, 진주 농민 봉기 중 1개 선택하여 취재 및 보도 ② 조선 후기에 널리 퍼진 종교의 특징과 공통점을 조사하여 신문 기사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3) - 모둠별로 협동하여 공동으로 작성 - 민간 구원 신앙, 천주교, 동학 등								* 학습지① 작성 - 모둠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동하도록 유도	
	• 추체험 2 (일기쓰기)	• 19세기 세도정치 하의 농민이 되어 생활 일기를 작성한다. 4) - 개인별로 작성하고 발표 -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기록								* 학습지② 해결 - 작성한 신문 기사를 실물화상기로 제작하여 발표	
정리 (10분)	• 학습 내용 정리 • 차시예고	• 세도정치 시기의 농민 저항과 당시 종교에 대해 정리한다. •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								* 요약 정리안 제시	

다. 수업 전개 노트

- 1) KBS 역사스페셜(최초공개 홍경래의 난, 진중일기)의 영상물을 내용에서 농민 봉기와 관련하여 발문하고 답변을 유도한다.
 - 가) 홍경래의 신분은 무엇인가?
 - 나) 홍경래와 농민들이 봉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 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날 무렵 조선의 정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 2) [3개 모둠] 세도 정치의 폐단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생 중계 형태의 방송 보도로 재현한다.(35분)
 - 가) 8명 1모둠별로 세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역할극 시나리오를 학습지①에 작성하도록 한다.(민란의 유형, 홍경래의 난, 진주 농민 봉기)
 - 나) 6개의 모둠 중 희망하는 주제가 겹칠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OX 게임을 승리한 모둠이 우선 선택권을 갖게 한다.(3개 모둠만 선택 가능)
 - 다) 배부된 참고자료를 재구성하여 자유롭게 구성하되, 모둠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3) [3개 모둠] 조선 후기 세도 정치 시기에 널리 퍼진 종교에 대해 조사한 후, 신문 기사로 작성하여 발표한다.(35분)
 - 가) 2)의 주제를 선택하지 않은 모둠은 역사탐구교실에 비치된 도서와 자료를 조사하여 세도 정치 시기에 널리 퍼진 종교들을 조사하도록 한다.
 - ① 모둠원끼리 역할을 분담하여 각 종교의 발생, 전파, 특징 등을 조사한다.
 - ② 각자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종교별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의하도록 한다.

- 나) 조사 내용과 토의 내용을 종합하여 모둠별로 자유롭게 신문 기사문을 작성하게 한다.(학습지 ②)
- 다) 작성된 신문 기사문을 모둠별로 1명씩 실물화상기로 제시하며 발표한다. (노트북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때에는 프리젠테이션 화면 이용 가능)

4) 19세기 세도정치하의 농민이 되어 생활 일기를 작성하게 한다.(30분)

- 가) 개인별로 세도정치 하의 농민이 되어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일기를 쓰도록 한다.(학습지③ 해결)

- | | |
|-------------------|----------------|
| ▶ 요즘 나의 처지는 | ← 나의 생활 형편 |
| ▶ 내가 ()교를 믿는 이유는 | ← 나의 종교와 그 이유 |
| ▶ 앞으로 나는 | ← 내가 선택한 저항 방법 |

- 나) 앞서 40분 동안 모둠별로 분담하여 학습한 내용을 참고해 되, 20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주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 다) 일기 내용이 당시의 사회 상황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라) 작성한 일기를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학생은 즉석에서 시상(칭찬)한다.



라. 학습자료 및 활동 모습

학습지 ①: 사건의 취재 민관의현장

▣ 세도 정치 시기에 일어났던 다음의 사건들 중 1개를 조사하여, 현장 상황을 중계 방송하는 형태로 발표하시오.

- 1. 민관(농민 봉기)의 유형 : 민관의 다양한 형태를 소개하는 방송
- 2. 흥경제의 난 : 원인, 전개 과정, 결과 등 방송
- 3. 진주 농민 봉기 : 원인, 전개과정, 결과 등 방송

▣ 유의 사항

- 1. 모둠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것
- 2. 모둠별로 선택한 주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
- 3. 현장 상황의 중계방송 시간은 3분 이내로 할 것
- 4. 참고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재구성할 것
- 5. 평가기준 : 방송 및 역할활동 대본, 모둠원이 역할 참여도

▣ 방송 시나리오

방송 대본(앵커풀)	역할 분담 및 역할 대본

학습지 ② : 조선후기에 널리 파진 종교

19세기 전후로 한 조선의 세도 정치 시기에 나타난 종교의 종류와 특징을 조사하고 공통점을 찾아 특집 신문기사를 작성해 보시오

- 1. 모둠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신이맡은 종교의 발생, 전파, 특징 등을 조사
- 2.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각 종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의
- 3. 토의된 내용을 토대로 아래의 양식에 자유롭게 신문 기사문 작성
- 4. 신문 기사 제목 및 내용은 창의적으로(제목 예 : 새 세상을 꿈꾸는 종교들)

종교별 특징	공통점

학습지 ② : 세도정하의 농민이 되어 생활 일기쓰기

19세기 세도 정치하에서 농민들의 삶은 매우 고달팠는데, 이는 삼정의 문란, 범관오리의 흉포, 자연재해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혼란속에서 농민들은 새로운 종교 속에서 미래를 모색하였다.

일기 주제

*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삽입하여 당시 농민의 입장이 되어 고달픈 삶과 종교, 희망 사항을 일기로 쓰기

1. 요즘 나의 처지는
2. 네가 ()교종교로 믿는 이유는
3. 앞으로 나는

주의 사항

1.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쓸 것
2. 앞서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당시의 농민 생활을 상상할 것

3. Logout : 수업의 포로와 프로

역사교육은 과거에 대한 경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사적 심성을 길러, 상상력·추리력·통찰력을 통해 현실과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이므로 추체험(enactment, ‘재연’, ‘재현’, ‘재역’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과 같은 수업방법은 역사교육에서 과거를 경험하게 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역사과 교육과정 속에서 흥미 있고 의미 깊은 학습주제를 선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당하며 수업방법과 학습전략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전문적인 일이다. 외우는 역사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직접 느끼고 생각하는 창의·인성수업을 위해서는 스스로 선생님으로서의 전문성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하곤 한다.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 나는 수업의 포로였다.
내가 나를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프로가 되었다.”

모둠 역할분담 모습(상)
사건 재연 장면(취재내용 일부)(하)



창의 · 인성 교육

‘끄집어내는 교육’의 시작을 알리며

인천부평남초등학교

교사 김 흥희

이야기 하나 창의 · 인성 교육에 대한 오해 풀기

1. 모든 교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창의 · 인성교육의 교육목표와 교수방법이 있다?

모든 교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창의 · 인성교육요소와 교수방법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의 전달이 요구될 때에는 강의식 수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 내용에 따라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학습,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수업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과학이나 수학에서 정직과 성실을 교과내용으로 가르쳐야 한다?

과학이나 수학시간에 정직과 성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과목에 과학적 정보와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직성이 필요하지만 이는 관련된 교과내용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묻어나오는 것 이지 정직성을 따로 가르쳐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모든 교과에 중요한 창의 · 인성요소가 있다?

모든 교과에서 꼭 다루어야 하는 공통된 창의 · 인성요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교과에서는 문제해결이라는 요소가 중요하지만, 사회교과에서는 다양성과 같은 요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수업에서 창의성요소와 인성요소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모든 수업에서 창의성요소와 인성요소가 50 대 50 비율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내용에 따라서 창의성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 질 수 있고 인성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용가능 합니다.

34

이야기 둘 인성을 기반으로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 4학년 1학기 – 1. 무게 재기 – ③ 내가 만든 저울로 무게 재기

▶ 창의적 문제 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 CPS)수업모형

CPS 모형 적용 교수 · 학습 단계	수업의 흐름		
문제의 이해	관심영역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 : <개구리 왕자 : 스토리텔링>으로부터 문제 인식하기 ① 개구리가 가져온 3개의 황금 공을 보고, 공주는 무엇이라고 했을까? ② 황금 공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③ 무엇을 알면 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요? • 수렴 : 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무게와 관련된 내용 가려내기 	
	자료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검토하기 ① 어떻게 하면 공주의 공을 가려낼 수 있을까? ②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수렴 : 저울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 검토하기 	
	문제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 : 위의 활동을 통해 오늘 무엇에 대해 공부할지 발표하기 • 수렴 : 학습목표 진술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 : 저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 변형속성열거법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산출하기 ① 어떤 저울이 공을 가려내는데 적합한 저울일까? ② 저울이 갖고 있는 속성들은 무엇인가? ③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가? ④ 속성이나 재료의 수정은 가능한가? • 수렴 :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울의 1차 설계도 완성하기 	
	해결방안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 : 유망한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조작하여 정교화 하기 ① 어떻게 하면 설계도를 구현할 수 있을까? ② P-P-C(긍정, 가능성, 걱정)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기 • 수렴 :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 저울 설계도를 완성하기 	
실행계획	수용방안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 : 간이 저울을 만들고, 저울을 사용하여 ‘공주의 공’ 찾아내기 • 수렴 : 찾아낸 ‘공주의 공’의 무게를 모둠별로 발표하기 	
	실생활 적용 및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생활의 쓰는 물건의 무게 재어보기 예) 연필, 지우개, 필통 등 • 새로 알게 된 사실, 재미있었던 일 발표하기 	

▶ 학습내용에 창의·인성 요소 반영하기

학습활동	창의·인성 요소	
개구리 왕자 <스토리텔링>	호기심 / 흥미	'개구리 왕자' 이야기에 관심 갖기
	상상력 / 확산적 사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가능한 많은 답을 생각하기
	분석적 사고	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무게와 관련된 내용 가려내기
다양한 정보와 자료 수집, 분류, 분석	확산적 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검토하기
	분석적 사고	저울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기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 검토하기
	획산적 사고	활동을 통해 오늘 무엇에 대해 공부할지 발표하기
학습목표 진술 저울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산출	분석적 사고	학습목표 진술하기
	획산적 사고	변형속성열거법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산출하기
	용기	스스로 생각한 것에 대해 도전하기
간이 저울 설계도 완성하기	분석적 사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울의 1차 설계도 완성하기
	비판적 사고	P-P-C 기법을 활용하여 설계도 평가하기
	분석적 사고 / 비판적 사고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 저울 설계도를 완성하기
	용서	입장이 다른 견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갖기
간이 저울 만들고, '공주의 황금공' 찾기	배려	다른 친구의 발표에 끝까지 듣고, 상충되는 의견과 합의하기
	획산적 사고	간이 저울을 만들고, 저울을 사용하여 '공주의 황금공' 찾아내기
	분석적 사고	찾아낸 '공주의 황금공'의 무게를 모둠별로 발표하기
	책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정직	내가 얻은 결과를 조직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정확하게 보고하기

이야기 셋 과학과 창의·인성수업 엿보기

▶ 수업 하나, 스토리텔링으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다

활동 1) '개구리왕자'를 재구성하여 이야기를 반전시킨다.



〈각색〉

개구리는 깊은 우물 속으로 들어가더니 황금 구슬을 가지고 나왔어.

개구리 : (황금 공을 한 개 들고 나와서) 공주님, 이 공인가요?

공 주 : 아니 아니야. 그 공이 아니야.

개구리 : (놀란 눈으로) 네~~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개구리 : (황금 공을 세 개 들고 나와서) “이 밑에는 3개의 공이 있었어요?, 어느 공인가요?”

공 주 : ????

▶ 수업 둘,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넘기다.

활동 2) 학습준비는 교사가, 학습 진행은 학생이 한다.



▶ 수업 셋, 학생수준에 맞게 창의기법을 변형하다.

활동 3) 창의기법은 창의성 신장의 필요조건이다.

36

속성열거법		변성속성열거법		변성속성열거법 예시	
단계	내용	단계	내용	단계	내용
① 문제 확인 및 재 진술하기		①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문제제기 (9~10분)	- 변성속성열거하기 - 학습자 ◎
② 속성 열거하기		② 대상의 속성(재료, 모양, 크기, 색깔, 특성 등을)을 나열해 보세요. 예) 천침, 손잡이, 추, 저울이 기울어진다. 수평이 되어야 한다. 등		2. 고정(9분) 3. 정리(9분) 4. 활동(9분)	1. 창의력 2. 고집 3. 정리 4. 활동
③ 각 속성을 새롭게 결합하거나 수정하세요. 예) 천침→종이컵, 손잡이→두꺼운 실 등		③ 각 속성을 새롭게 결합하거나 수정하세요. 예) 천침→종이컵, 손잡이→두꺼운 실 등		5. 활동(9분) 6. 정리(9분) 7. 활동(9분) 8. 정리(9분)	1. 창의력 2. 고집 3. 정리 4. 활동
④ 생성된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예) 용수철이 잘 늘어나는지 살펴보자. 종이컵이 고정이 되는지 살펴보자.		④ 실행 가능성성을 검토하세요. 예) 용수철이 잘 늘어나는지 살펴보자. 종이컵이 고정이 되는지 살펴보자.		9. 활동(9분) 10. 정리(9분)	1. 창의력 2. 고집 3. 정리 4. 활동

▶ 수업 넷, 인성요소를 수업에서 물어나게 하다

활동 4) 모둠활동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예를 통해 인성을 강조한다.

6학년 8반 17번 이름: 김예진		1. 창의기법		PPC 대화기법	
단계	내용	단계	내용	단계	내용
1. 창의하는 철학 (내가 창의하는 철학)	내가 창의하는 철학 	2. 고집 (내가 창의하는 철학)	내가 창의하는 철학 	3. 정리 (내가 창의하는 철학)	내가 창의하는 철학
2. 창의하는 철학 (내가 창의하는 철학)	내가 창의하는 철학 	3. 고집 (내가 창의하는 철학)	내가 창의하는 철학 	4. 정리 (내가 창의하는 철학)	내가 창의하는 철학
3. 창의하는 철학 (내가 창의하는 철학)	내가 창의하는 철학 	4. 고집 (내가 창의하는 철학)	내가 창의하는 철학 	5. 창의하는 철학 (내가 창의하는 철학)	내가 창의하는 철학

인성 : 용서, 배려

- ① 설계도 수정 및 선택 시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더라도 타인의 입장과 견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다.
② 모둠활동 시 상충되는 의견과 합의에 이르도록 한다.

〈인성요소 정의〉

- 용서 : 비록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거나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입장과 견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의미함
- 배려 : 다문화, 디학문 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상충되는 의견과 합의에 이르는 능력

▶ 수업 다섯, 믿음이 수업을 완성하다

활동 5)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교사는 학습을 안내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와 같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고를 유도
하는 발문을 던진다.

▶ 수업 여섯, 창의적인 행동과 인성적인 실천을 평가하다

활동 6) 교과학습목표와 창의·인성목표를 함께 평가한다.

평가 영역	평가기준	평가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교과 학습 목표	1. 저울의 원리를 응용하여 간이 저울을 만들 수 있다.					
	2. 간이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쟈 수 있다.					
창의 인성 목표	1. 저울을 만들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다.					
	2.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 저울 설계도를 완성할 수 있다.					
	3. 자신의 의견을 비판하더라도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4. 다른 친구의 발표를 끝까지 귀 기울일 수 있다.					
	5. 저울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6. 자신이 측정한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고 정직하게 보고할 수 있다.					
	합산					
교사의견 및 채점평가		* 동료평가, 자기평가 결과 참고				

학생 개개인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 간의 평가나 획일적 기준에 따른 평가보다는 개인을 배려하는 개인 중심의 평가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참조평가와 능력참조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 성장참조평가 : 교육과정을 통해 얼마나 성장 했는가에 관심을 두는 평가로서 학생들에게 학업 증진의 기회 부여와 개인화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 능력참조평가 :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에 초점을 두는 평가방법으로서 각 학생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평가되는 특징이 있다.

지구의 하모니(조화 · 질서)를 찾아서

인천신현고등학교
교사 이두영

이야기 하나 궁시렁 궁시렁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의 구분이 없어지고 짬뽕이 되어버린 고등학교 1학년 융합 과학의 내용은 참으로 넓고도 크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껏 섞어서 가르쳐보자!
대입 준비를 하고 있는 인문계 학생들에게
창의 · 인성수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꼭 실험을 하지 않고도 한 시간 창의 · 인성수업을 잘했다고
소문나는 방법은 없을까?

38



이야기 둘 교과서에 나오는 토론 문항을 발전시키기

▶ 1학년 1학기 II. 태양계와 지구 (pp.80~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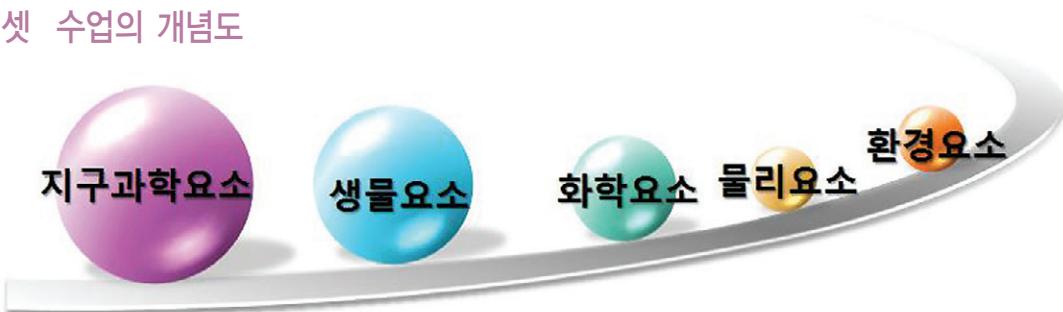
교과서에 나오는 질문 : 고등학교 과학(천재교육) p.81

- 만약에 지구가 수성처럼 태양에 더 가까이 있거나, 토성처럼 태양에서 더 멀리 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더 빠르거나 느리게 자전하거나 공전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더 크거나 작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 만약에 지구에 물이 없었다면, 있더라도 모두 기체나 고체 상태로만 존재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위의 문항들은 필자는 융합과학의 목적에 알맞게 문항들을 엮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상 수업의 방식으로, 3명씩의 모둠을 통하여 실험을 통하지 않고도 종합적인 사고력을 통하여 창의 · 인성적인 수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 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호기심, 추리, 예상을 통하여 일반화의 과정을 이어가는 모둠별 토론 수업으로 진행한다.
- 네 번째 문항을 시작으로 하여 만약에 – 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분야를 연관시켜 종합적 사고를 유도하는 연상수업으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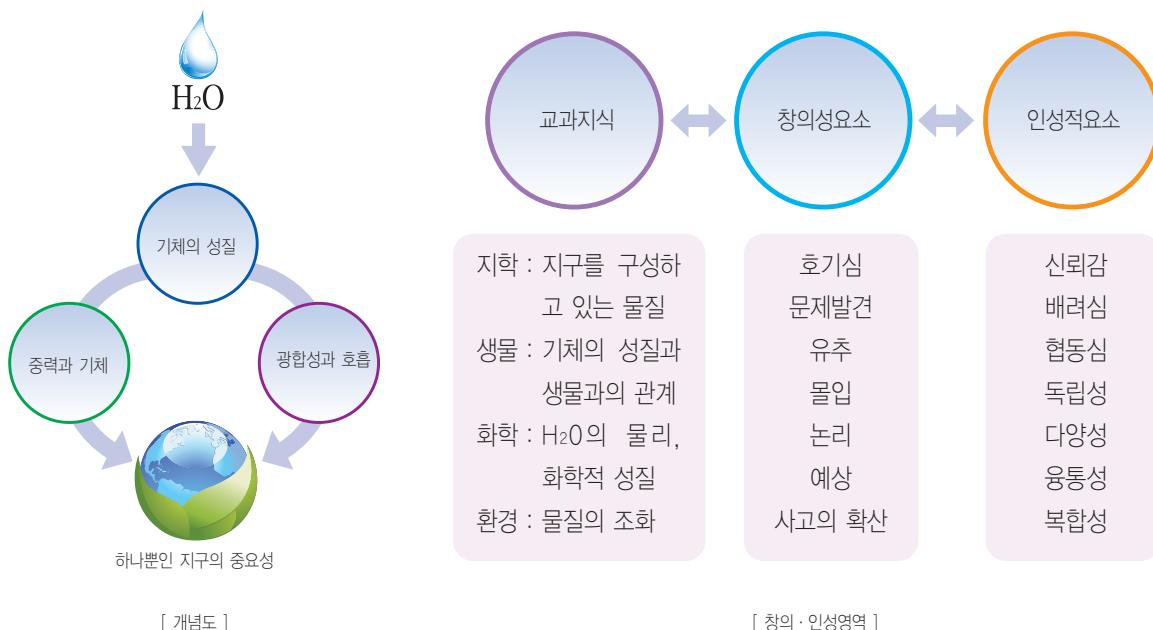
이야기 셋 수업의 개념도



▶ 단원에 대한 주제선정 이유

- ① 이론 수업에서도 호기심, 추리, 예상, 일반화의 탐구과정을 통해 융합과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 ② 기존의 진화론적 접근(우연으로 표현되는-)만으로는 과학과목에서 인성을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겠다.

▶ 수업에 대한 개념도와 창의·인성 영역 추출(1차시)



▶ 수업의 진행과정에서 제시되는 사진 자료



- ① 화성의 모습
- ② 태양의 모습
- ③ 녹색 외계인
- ④ 문어머리 외계인
- ⑤ 북극의 얼음바다
- ⑥ 100m 보다 큰 나무

이야기 넷 수업 진행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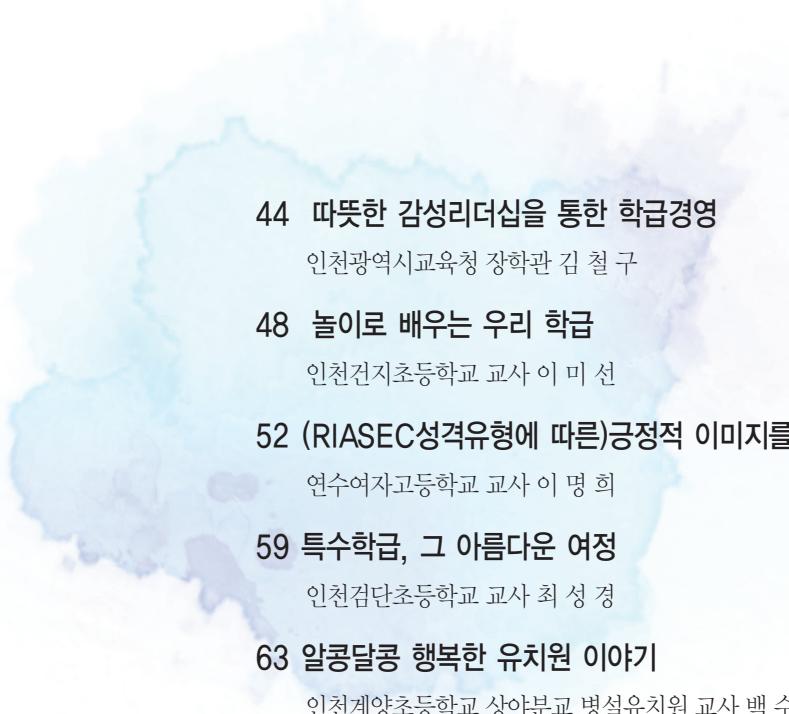
과정	교수·학습활동	영역	요소																									
전개	<p>[질문9] 만약에 산소(O_2)가 공기보다 가볍다면? <토론9> 동물은 모두 숨을 못 쉬고 죽을 것이다.</p> <p>[질문10] 만약에 고체인 얼음이 물보다 무겁다면? <토론10> 북극, 남극, 한강 등의 물고기는 겨울이 되면 모두 얼어버려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p> <p>[질문11] 고체인 얼음이 물보다 가벼운 이유는? <토론11> 얼음은 분자들 사이의 수소결합이 정육면체로 균일하게 이루어져 빈 공간이 많아서 가볍다.</p> <p>[질문12] 그러면 수소가 공기보다 가볍고 산소가 공기보다 무겁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토론12> 지구의 중력과의 적절한 관계 때문이다.</p> <p>[질문13] 그러면 지구의 중력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토론13> 지구의 질량과 원심력에 근거한다.</p> <p>* 지금까지의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개념 정리 하기</p> <p>[개념정리] 물의 성질</p> <table border="1"> <tr> <td>지학</td><td>수소($2H_2$)</td><td>+</td><td>산소(O_2)</td><td>→</td><td>물(H_2O)</td></tr> <tr> <td>화학</td><td>불에 탄는 가연성 기체</td><td>—</td><td>탄는것을 돋는 조연성기체</td><td>—</td><td>오히려 불을 끄는 물질</td></tr> <tr> <td>물리</td><td>공기보다 가볍다</td><td>—</td><td>공기보다 무겁다</td><td>—</td><td>4°C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td></tr> <tr> <td>생물</td><td>용은 수소로 불을 만들었다고 한다.</td><td>—</td><td>동물의 호흡에 사용한다.</td><td>—</td><td>생물의 근원이 된다</td></tr> </table>	지학	수소($2H_2$)	+	산소(O_2)	→	물(H_2O)	화학	불에 탄는 가연성 기체	—	탄는것을 돋는 조연성기체	—	오히려 불을 끄는 물질	물리	공기보다 가볍다	—	공기보다 무겁다	—	4°C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	생물	용은 수소로 불을 만들었다고 한다.	—	동물의 호흡에 사용한다.	—	생물의 근원이 된다	물리 화학 물리 생물	사고의 확장 문제 해결력 논리 유추 사고의 확장 연계성	창의성 의 여 소
지학	수소($2H_2$)	+	산소(O_2)	→	물(H_2O)																							
화학	불에 탄는 가연성 기체	—	탄는것을 돋는 조연성기체	—	오히려 불을 끄는 물질																							
물리	공기보다 가볍다	—	공기보다 무겁다	—	4°C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																							
생물	용은 수소로 불을 만들었다고 한다.	—	동물의 호흡에 사용한다.	—	생물의 근원이 된다																							
정리	<p>[질문14] 그러면 지구 질량의 38%에 해당되는 화성에서는 공기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토론14>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지에서 생활해야 한다.</p> <p>[질문15]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나요? <토론15>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적인 요소의 조화로 규칙을 가지고 매우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지구환경을 잘 보존해야 한다.</p> <p><결론> 그래서 우주를 뜻하는 단어인 'COSMOS'에는 조화, 질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과학자들이 수학적으로 발견해 내는 것을 '법칙'이라고 한다.</p>		신뢰감 다양성 융통성 협동성 복합성 책임감	인성 의 여 소																								

기획 II

감성이 살아 있는 학급운영

42





44 따뜻한 감성리더십을 통한 학급경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관 김 철 구

48 놀이로 배우는 우리 학급

인천건지초등학교 교사 이 미 선

52 (RIASEC성격유형에 따른)긍정적 이미지를 통한 소통

연수여자고등학교 교사 이 명 희

59 특수학급, 그 아름다운 여성

인천검단초등학교 교사 최 성 경

63 알콩달콩 행복한 유치원 이야기

인천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 병설유치원 교사 백 수 경

따뜻한 감성리더십을 통한 학급경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관 김 철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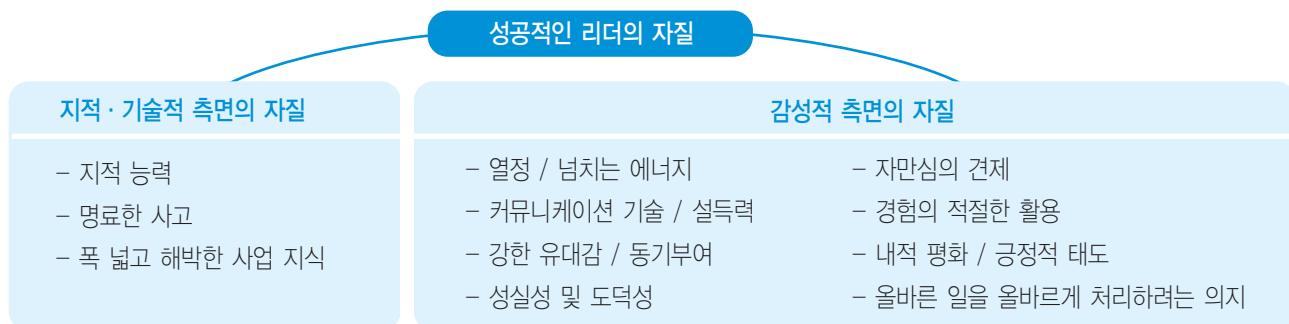
I. 따뜻한 감성리더십이란?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면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게 된다. 이렇듯 교실에서는 인격을 연마하고, 사회성, 협동심, 규칙과 규율을 배우고 익힌다. 이와 같이 일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 집단인 동시에 생활 집단이며 학교 조직의 기초 단위를 학급이라고 한다. 이에 교사가 학급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고 조장하며, 학교경영의 하위체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급담임교사는 따뜻한 감성리더십을 지니고 학생들을 지도해 갈 때 학급 경영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음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최고경영자(CEO) 50명을 대상으로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적인 자질 15 가지를 지적·기술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의 자질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44



이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자질들 중 단지 3가지만이 지적 혹은 기술적 능력과 관련되었을 뿐, 대부분이 따뜻한 차원의 감성지능을 기반으로 한 태도나 의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시사점은 지적 능력 혹은 기술적 능력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리더로서의 능력과 기술을 겸비한 엘리트라도 진정한 1등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살아 숨 쉬는 감성적 측면의 자질을 갖추

어야 한다. 따라서 리더 자신의 감성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어 조직의 감성능력까지 발현하도록 하는 감성리더십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급담임교사의 따뜻한 감성리더십은 교사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학생의 감성 및 필요를 배려함과 동시에 학급의 학생, 학부모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여 학급의 감성역량을 높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II. 따뜻한 감성리더십의 네 가지 차원

따뜻한 감성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평가하고 솔직해질 수 있는 자기인식능력이 높아야 한다. 두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필요한 요소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능력이다.

다음 표는 감성리더십의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요 소	개 념	리더에게서 발현되는 행동특성
자기인식능력 (self-awareness)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능력/관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 • 자신의 감정이 업무 및 조직에서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하고 이해
자기관리능력 (self-management)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여 바꿀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제력, 책임감 • 변화에 대한 개방성 및 적응력
사회적 인식능력 (social-awareness)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응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능력
관계관리능력 (relationship management)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관리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득력 있는 메시지 전달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변화 주도 • 갈등관리 연대감 조성 • 팀을 조직하고 팀워크를 이끌어내는 능력



넷째로는 부하에게 영향력을 주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며 팀을 조직하고 팀워크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관계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III. 감성리더십 사례와 학급경영 적용 방안

다음의 사례는 감성리더십의 대가인 골멘(Goleman)이 쓴 '감성리더십'이라는 책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감성리더십의 네 가지 차원에서 발췌하였다. 주로 기업과 같은 경영분야에서 있었던 사례이지만 학급담임교사가 학급경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사례1) 자기인식능력

캐피탈원의 대표이사인 리처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리더는 자신의 직관력에 의존해서 가시적 전략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자료만 갖고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많지요. 앞으로 3년 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원가 시작해 두지 않으면 당신은 3년 후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한다 해도 다음날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낯선 정보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 학급의 리더인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끊임없는 질문과 판단을 요구 받는다. 이 때 정보 수집을 통한 확신을 가지고 명쾌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판단했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가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면 신뢰감이 상실하기 쉽다. 이는 리더로서 치명타이다.

사례2) 자기관리능력

IBM의 최고경영자(CEO)였던 토마스 와튼의 일화도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부하 직원이 와튼의 호출을 받자, 회사를 그만두라는 소리를 들을 것을 예상하고 침울한 마음으로 그의 방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와튼은 “너무 상심 말게. 자네의 교육비용으로 천만 달러를 쓴 거야”라는 말을 들려주면서 오히려 그를 격려해 주었다. 이 일은 그 부하 직원을 더욱 노력하게 만든 것은 물론, 조직 전체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풍토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실수에 대한 관용과 성공에 대한 인정은 구성원의 열의와 진취적인 자세를 이끌어 내는 핵심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링컨 대통령과 흑인 여비서의 사례에서도 대통령의 유연한 대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

▷ 교사는 동료교사나 학생의 작은 실수에도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끔 격려하는 것으로 리더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게끔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로 리더들은 베풀고 나눔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학생들이 봉착한 난관을 모르고 지나치거나, 반대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의 능력 개발 기회를 없애고 장기적으로 학급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교사는 인재를 키워가는 관리자이다. 교사는 직접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동료교사나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위치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답답하고 맘에 안 든다고 그를 배제하고 직접 일을 하거나 나서면 언제 그들이 일(학습)을 할 수 있을까? 천천히 가르쳐주면서 일(학습)에 대한 의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사례3) 사회적 인식능력

호주 웨스트팩은행의 최고경영자인 데이비드 모건은 매년 약 20일에 걸쳐 한 번에 40명씩 총 800명에 이르는 각 부서의 우수사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다. 모건은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내가 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지요. 저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업무현장과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 앉아서도 회사를 경영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엔 아닙니다.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모르면 거기서 큰 화가 초래될 수 있지요.” 그러한 피드백의 시간이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모든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과 같은 각종 모임 등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며, 학급담임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곳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며, 학급조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것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실행하게끔 격려하고 성공을 거둘 경우에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잘못에 대한 질책은 많이 하지만, 칭찬에는

인색한 교사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것처럼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학생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그들의 열정에 찬 물을 끼얹는 셈이 될 수도 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 원고 담당이었던 폐기 누난(Peggy Noonan)은 자신의 원고 초안에 “매우 훌륭함”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돌아오자, 이를 오려 가슴에 붙이고 다녔다고 한다. 이처럼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학생들이 노력한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칭찬을 해 주는 것은 상대를 즐겁고 신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칭찬과 더불어 실수에 대한 관대한 포용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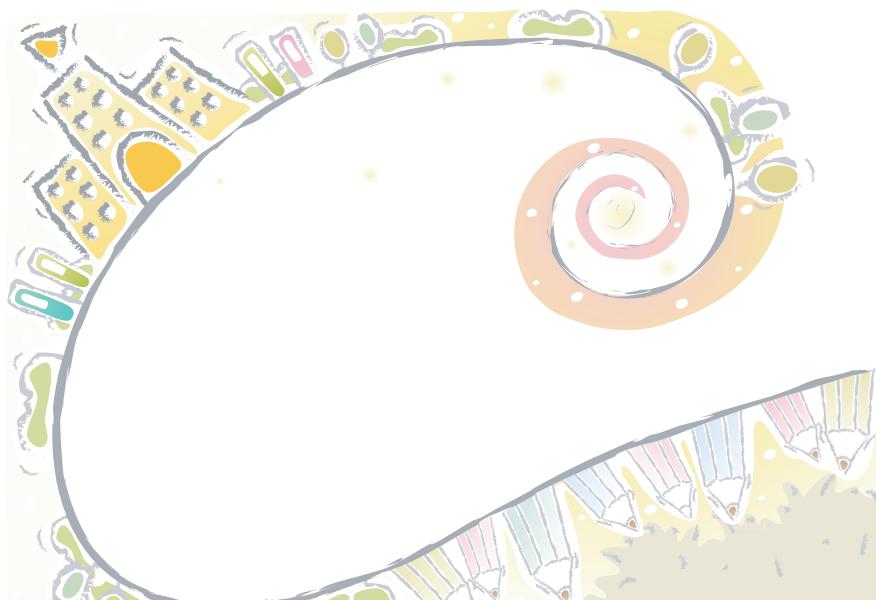
IV. 맷음말

지금까지 감성리더십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관련 사례와 그에 따른 학급경영의 교육적 적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성공적인 리더십은 자기 자신과 주변과의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인식, 관계관리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감성적 리더는 이러한 4 가지 영역에서 능력이 뛰어난 리더를 의미하며 이러한 감성적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이 감성리더십이다.

따뜻한 감성적 리더십은 교사의 감성을 통하여 학생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학급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감성에 변화의 흐름을 납득시키고 학생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집단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태도변화는 학급에 대한 소속감으로 연계되어진다.

학급담임교사의 감성리더십은 학생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에 대한 신뢰는 교사가 학생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학생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학급을 경영하는 교사 입장에서 감성리더십의 네 가지 자질을 갖추고 학급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철구(2008). 학교장의 감성리더십이 교사의 감성지능 및 직무만족,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정길, 문승권, 문형남(2004). 감성경영 감성리더십. 서울 : 넥스비스
장석훈 역(2003). 감성의 리더십. 서울 : 청림출판

놀이로 배우는 우리 학급

인천건지초등학교
교사 이 미 선

(행복마당 하나) 아래서 필요해요

21세기에 중요한 것은 “사람 간의 따뜻한 관계”라고 한다.

우리가 지식만 가르치고자 한다면 굳이 학교라는 공간에 모여 교육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요즈음은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교육 받을 수 있다. 학교라는 공간에 모아 놓고 교육하는 까닭은 사회생활 즉, 인간관계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을 배우고 익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신뢰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집단 속에서 생활하기에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한다.

아이들은 놀면서 사람을 배우고 에너지를 발산하며 크는 것이 정상인데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을 돌아보면 함께 어울려

놀거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학원과 컴퓨터로 채워진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를 느낄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발달 단계상 호기심이 많고 활동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은 놀 이를 좋아한다. 닫힌 공간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친구들을 소중히 생각하게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주어야 한다. 사람은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삶을 가꾸어 간다. 교실은 만남을 배우는 공간이고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교 교실에서 보내는 아이들은 그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한다. 어울리는 기쁨을 많이 경험하며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라 행복한 아이들이 되길 바란다.

(행복마당 둘) 마음 가꾸기 놀이

1. 나 소개하기

진행 방법

1. 학급 어린이 모두 큰 원을 만들어 선다.
2. 스폰지 주사위를 공중에 던져주면 주사위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다.
3. 주사위 받은 사람이 주사위를 안고 자기소개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은 주의 깊게 듣는다.
4. 자기소개를 마친 후 스폰지 주사위를 다른 사람에게 던져준다.
5. 다시 위의 2~4번을 반복하면서 모두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한다.



날아오는 주사위 받기



자기 소개하기

▶ 놀이로 배운 공부는?

- 학기초 친구 이름 쉽게 익히기
- 나를 남에게 개방할 수 있는 자신감 갖기
- 나 자신 사랑하기
- 친밀감 높이기

2. 당신은 이웃을 사랑합니까?

진행 방법

1. 인원수보다 하나 적게 의자를 준비하여 둉그렇게 앉는다.
 2. 술래를 뺀 모두는 의자에 앉고 술래는 한 친구의 앞에 가서 질문한다.
(술래 : 당신은 이웃을 사랑합니까?
질문 받은 사람: 네
술래 : 어떤 이웃을 사랑합니까?
질문 받은 사람 :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을 사랑 합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 모두 일어나 자기 자리 아닌 의자에 앉기)
※ 여기서 술래가 된 사람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조건을 제시하도록 한다.
 3. 대답에 따라 자리를 바꿔 앉는데 이때 의자에 못 앉은 한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된다.



둘그렇게 앉기



술래가 질문하기

▶ 놀이로 배운 공부는?

- 서먹한 분위기에서 마음 풀기
 - 친구와의 닮은 점을 찾으며 친밀도 높이기



해당자 자리 이동하기

3.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줘

진행 방법

- 학급전체를 두 모둠으로 나누어 두 원을 만들 어 각각의 원에 술래(외톨이)를 정한다.
 - 바깥쪽을 향해 원(벽)을 만들어 옆 사람과 양팔 을 걸고 선다.
 - 술래는 친구들에게 말을 걸거나 두 사람 사이 의 팔을 풀려 벽이 무너지게 한다.
(이때 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술래의 말을 들어주거나 신체적 반응을 하지 않고, 팔 이 풀리지 않도록 꼭 잡는다.)
 - 술래는 힘이나 말로 벽을 허물도록 노력을 한 다.
 - 팔을 풀면 풀린 사람과 같이 술래가 되어 벽허 물기를 한다.
 - 혼자서 벽허물기와 둘 이상 같이 벽허물기, 내가 술래일 때와 친구가 술래일 때의 나의 생 각을 비교 발표를 한다.

▶ 놀이로 배운 공부는?

- 외톨이 경험해 보기
 - 외톨이 된 친구의 마음 이해하고, 외톨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기
 - 친구의 고마운 악기



말 시켜도 대꾸하지 않기



혼자서 벽 허물기



친구와 같이 벽 허물기

4. 동시에 노래 부르기

진행 방법

1.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송아지' 노래를, 다른 한 팀은 '비행기' 노래를 동시에 부르되 큰 소리로 부른다. (※부르는 노래는 단순하고 익숙한 곡을 선택한다.)
2. 큰 목소리를 내어 부른 팀에게 도전점수를 주어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쉴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게 됨)

▶ 놀이로 배운 공부는?

- 자신감 키우기 (서로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하면서 목소리에 있어 활동 수준이 매우 높아져 다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



5. 칭찬세례 받기

진행 방법

1. 6~7명이 한 모둠이 되어 원을 만들어 선다.
2. 모둠 가운데 한 사람이 서고, 가운데 선 사람을 친구들이 돌아가며 칭찬을 해준다.
3. 칭찬을 받기 전에 서로 인사를 하고, 칭찬의 말을 들은 후 서로 인사를 나눈다.
4. 한 사람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2~3을 반복하여 모둠 친구들이 모두 칭찬을 해주고 받는다.

▶ 놀이로 배운 공부는?

-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증진
- 몰랐던 나의 장점 찾기
- 친구 칭찬하기로 교우관계 개선
- 말과 행동의 순화
-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대해 관심 갖기



활동소감 발표하기

칭찬하기

6. 여기! 여기!

진행 방법

1. 학급 인원을 두 줄로 서서 짹을 정한다.
2.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선다.
3. 한 쪽 줄은 눈을 꼭 감고, 반대편 다른 줄은 눈 감은 짹을 소리로 자신이 있는 쪽으로 다치거나 부딪치지 않고 오도록 잘 인도를 한다.
4. 눈 감은 아이는 자신의 이름의 불리는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여 간다.
※ 이름 대신 다른 약속 소리(손뼉, 동물 울음 소리 등)로 정해서 할 수 있다.
5. 역할을 바꾸어 활동해 본다.



쫙이 부르는 방향으로 소리 듣고 가기

▶ 놀이로 배운 공부는?

- 친구에 대한 신뢰감 쌓기
- 장애우의 불편함을 간접 체험하기
- 우리 몸의 소중함 알기

7. 귀 기울여 들어요

진행방법

- 활동 1 : 친구가 이야기 할 때 시선을 맞추지 않고 듣거나 시선을 맞추나 딴 생각 하며 질문을 할 경우 엉뚱한 대답하기
활동 2 : 친구가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 를 끄덕이며 잘 들어주기



활동1의 모습



활동2의 모습

▶ 놀이로 배운 공부는?

-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잘 들어주기 태도 향상
- 대화의 기법과 대인관계 향상

(행복마당 셋) Happy up!

또래와의 자유롭고 동등한 관계는 초등학생 시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시기의 아이들은 교사와 친구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점차 커져,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고 또래 집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기에 건전한 대인관계 맺는 방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여러 가지 놀이를 가르쳐 주면서 함께 해보는 가운데 아이들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 교사를 잘 따르고 짹, 모둠, 대집단 놀이를 통하여 바른 경쟁 속에서 규칙을 지키는 자세와 협동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잊은 신체 접촉으로 친구와의 친밀감이 높아지고, 몸으로 부대끼며 점점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하였다. 규

칙과 방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운데 더 나은 놀이를 개발하며 정해진 틀 속에서 나름대로 변화의 묘를 발휘하여 덤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하루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미”라고 한다. 우리 어른들도 “재미”가 없다면 세상을 살아갈 기분이 나지 않지 않는가? 우리 교사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신뢰감을 쌓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자신감 있게 자아를 키워가면서 행복한 성장을 거듭하여 됨됨이 고운 행복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한다.



(RIASEC성격 유형에 따른)

긍정적 이미지를 통한 소통

연수여자고등학교
교사 이명희

고민 1 – 나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의 강물이 학생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범람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소통되지 않는 막막함이 교실 안에서 나를 외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 좀 해보자고 무릎 맞대고 마주 앉은 상담 장면에서 나를 외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서있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몰라 차라리 등을 돌리고 마는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아마도 더 외로웠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중에 만난 우화 한 편이 있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나와 학생들의 관계도 혹시 ‘소와 사자’의 관계는 아니었을까? 고민해 봅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합니다. 둘은 혼인을 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합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참을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둘은 마주앉아 이야기 합니다. 소와 사자는 다투었습니다.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며 서로에게 한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였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죽도록 사랑했던 그들이 왜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소는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이었습니다.

고민 2 – 어떻게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친구들과 소통하고 자기이해를 통해 자신과 소통하게 하며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상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까운 데에서 찾기로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흔하게 활용하고 있는 심리검사가 적성검사입니다. 그 적성검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론이 Holland의 인성이론입니다. 자신의 성격 · 흥미 · 적성 · 가치관 면에서 RIASEC 유형을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Holland는 성격과 환경 유형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여섯 가지 유형을 현실형(Realistic), 탐구형(Investigative), 예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기업형(Enterprising), 관습형(Conventional)의 첫글자를 따서 RIASEC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하고 나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소통 1

RIASEC 이미지 진단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기

(1) 이미지 진단 방법

- 학급 집단이나 소집단 모두에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번부터 30번까지의 이미지를 읽어 합니다. 30개의 이미지 중 부정적인 이미지는 하나도 없음을 알려 줍니다. 이 이미지들은 서로 다를 뿐입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없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들의 이미지를 진단해 주면 된다고 알려 줍니다.
- 소집단 – 집단 내에서 진단지를 돌려 30개 문항 중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 특성 3개에 ○표를 하게 합니다.
- 학급 집단 – 이미지를 진단받고 싶은 친구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나눈 후 본인의 진단지를 내밀고 30개 문항 중 가장 잘 어

울리는 이미지 특성 3개에 ○표를 하게 합니다. 총 7명에게 진단받은 학생은 자신의 자리로 와서 앉습니다.

(2) 이미지 진단 결과 정리

- 진단받은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보며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왜 그런가?
 -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왜 그런가?
 - 의외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왜 그런가?
 - 내가 갖고 싶은 이미지는 무엇인가? 왜 그런가?
 -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3) 이미지 진단표

No	이미지	1	2	3	4	5	6	7
1	솔직하다							
2	논리적이다							
3	창의적이다							
4	소박하다							
5	집중력이 강하다							
6	자유분방하다							
7	인내심이 있다							
8	탐구적이다							
9	감성이 풍부하다							
10	믿음직하다							
11	자적이다							
12	개성이 강하다							
13	검소하다							
14	침착하다							
15	낭만적이다							
16	친절하다							
17	열정적이다							
18	예의바르다							
19	이해심이 많다							
20	낙천적이다							
21	단정하다							
22	다정다감하다							
23	사교적이다							
24	정확하다							
25	편안하다							
26	활동적이다							
27	책임감이 강하다							
28	상냥하다							
29	대범하다							
30	겸손하다							

(4) 이미지 집계 방법

- 집계표에 진단받은 이미지를 옮기게 합니다.
(1번 ‘솔직하다’에 3명이 O표를 했다면 1번 ‘솔직하다’ 옆에 3이라고 쓰고, 16번 ‘친절하다’에 2명이 O표를 했다면 16번 ‘친절하다’ 옆에 2라고 쓰면 됩니다.)
 - 이미지의 수를 RIASEC 유형별로 합하여 자신이 어느 유형인지 살펴 보게 합니다.
- R - 1, 4, 7, 10, 13 / I - 2, 5, 8, 11, 14 / A - 3, 6, 9, 12, 15
S - 16, 19, 22, 25, 28 / E - 17, 20, 23, 26, 29 / C - 18, 21, 24, 27, 30
- 남이 보는 나의 이미지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가 일치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5) RIASEC 이미지 집계표

R [Realistic] () 개		I [Investigative] () 개		A [Artistic] () 개	
S [Social] () 개		E [Enterprising] () 개		C [Conventional] () 개	
1	솔직하다	2	논리적이다	3	창의적이다
4	소박하다	5	집중력이 강하다	6	자유분방하다
7	인내심이 있다	8	탐구적이다	9	감성이 풍부하다
10	믿음직하다	11	지적이다	12	개성이 강하다
13	검소하다	14	침착하다	15	낭만적이다
16	친절하다	17	열정적이다	18	예의바르다
19	이해심이 많다	20	낙천적이다	21	단정하다
22	다정다감하다	23	사교적이다	24	정확하다
25	편안하다	26	활동적이다	27	책임감이 강하다
28	상냥하다	29	대범하다	30	겸손하다

소통 2

긍정적 자아상 만들기를 통해 자신과 소통하기

(1) 방법

- 학생들에게 색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줍니다. 될 수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색종이를 갖게 합니다.
- 30개 이미지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고르게 합니다. 친구들이 선택해 준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 내가 바라는 자신의 이미지 등에서 고르면 됩니다.
- 색종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게 합니다. 종이를 접거나 오리거나 찢거나 구기거나 그리거나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담겨 있으면 됩니다.
-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해도 좋습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왜 그 이미지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색종이 모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말하게 합니다.
- 색종이로 형상화한 이미지를 자신의 긍정적 자아상으로 기억하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성격 유형별 특징

성격유형	특 징	선호하는/싫어하는 활동
실재형 (Realistic type)	남성적이고, 솔직하고, 성실하며, 겸소하고, 지구력이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소박하고, 말이 적으며, 고집이 있고, 직선적이며, 단순하다.	분명하고,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상이나 연장, 기계, 동물들을 조작하는 활동 내지는 신체적 기술들을 좋아하는 반면, 교육적인 활동이나 치료적인 활동은 좋아하지 않는다.
탐구형 (Investigative type)	탐구심이 많고, 논리적·분석적·합리적이며, 정확하고, 지적호기심이 많으며, 비판적·내성적이고, 수줍음을 잘 타며, 신중하다.	관찰적·상징적·체계적으로 물리적·생물학적·문화적 현상을 탐구하는 활동에는 흥미를 보이지만, 사회적이고 반복적인 활동들에는 관심이 부족한 면이 있다.
예술형 (Artistic type)	상상력과 감수성이 풍부하며, 자유분방하며, 개방적이다. 또한 감정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며, 개성이 강한 반면, 협동적이지는 않다.	예술적 창조와 표현,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고,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한다. 모호하고, 자유롭고, 성장적인 활동을 좋아하지만, 명쾌하고,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활동에는 흥미가 없다.
사회형 (Social type)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며,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남을 잘 도와주고, 봉사적이며, 감정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치료해 주고, 봉사하는 활동에는 흥미를 보이지만, 기계·도구·물질과 함께 명쾌하고,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활동에는 흥미가 없다.
기업형 (Enterprising type)	지배적이고, 통솔력·지도력이 있으며, 말을 잘하고, 설득적이며, 경쟁적이고, 야심적이며, 외향적이고, 낙관적이고, 열성적이다.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태인을 선도·계획·통제·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위신·인정·권위를 얻는 활동을 좋아하지만 관찰적·상징적·체계적 활동에는 흥미가 없다.
관습형 (Conventional type)	정확하고, 빈틈이 없고, 조심성이 있으며, 세밀하고, 계획성이 있으며, 변화를 좋아하지 않으며, 원고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들을 기록, 정리, 조직하는 일을 좋아하고, 체계적인 작업환경에서 사무적, 계산적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을 좋아한다. 그러나 창의적, 자율적이며 모험적, 비체계적인 활동은 매우 혼란을 느낀다.

(3) 이미지진단 활용 활동지

▶ 자신의 이미지 진단 중

- ①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 ()
– 이유:
- ②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이미지 ()
– 이유:
- ③ 의외의 이미지 ()
- ④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
- ⑤ 내가 갖고 싶은 이미지 ()
– 이유 :

▶ 긍정적 자아상

- ① ()는 이미지를
()으로 표현하였다.
- ② 무슨 색깔로 어떻게 만들었나?
- ③ 왜 그렇게 만들었나요?

▶ 이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 나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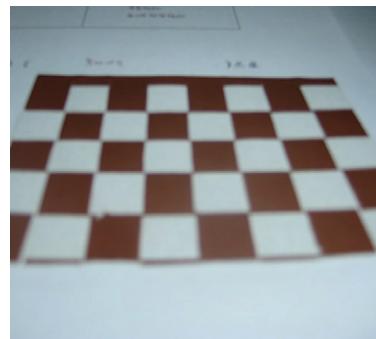
남이 보는 나의 유형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유형	희망직업	희망 전공

56

(4) 색종이로 만들어진 자아상의 예



이미지 '믿음직하다'를
갈색 색종이를 구기고 뭉쳐서
돌로 만들었습니다.
말없이 단단하고 강한 모습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미지 '논리적이다'를
갈색 색종이와 뒷면의 흰색을
섞은 모자이크로 표현하였다.
분명하고 이치에 맞는
일관성을 모자이크 칸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미지 '열정적이다'를
빨간 색종이를 오려 해를
쫓는 호랑이로 나타냈습니다.
아무리 목표가 높아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목표를
향해 달려 가고 싶은 마음을 나
타내고 싶었습니다.



이미지 '자유분방하다'를
파란색 폭탄으로 표현했습니다.
파란색으로 넓은 하늘이나
깊은 바다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폭탄 모양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로운 생각을
나타냅니다. 주변의 조각들은
내 존재의 조각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침을 의미합니다.

(5) 이미지진단 활용 활동지

1. 자신의 이미지 진단 중

- 1)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 (상냥하다)
 - 이유 : 사람들이 내게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어서
- 2)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이미지 (활동적이다)
 - 이유 : 차분하지 못하고 너무 산만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느껴져서
- 3) 의외의 이미지 (지적이다)
- 4)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다정다감하다)
- 5) 내가 갖고 싶은 이미지 (믿음직하다)
 - 이유 : 남들이 나를 믿고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2. 나의 유형

남이 보는 나의 유형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유형	희망직업	희망 전공
I	S	간호사	간호학과

3. 긍정적 자아상

- 1) (다정다감하다)는 이미지를 (눈물)로 표현하였다.
- 2) 무슨 색깔로 어떻게 만들었나?

노란 색종이를 오려서 눈물을 만들었다. 노란색은 기쁨을 표현하고 눈물은 슬픔을 표현한다.
- 3) 왜 그렇게 만들었나요?

나는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그래서 남들의 슬픔도 기쁨도 내 것처럼 느껴진다. 나의 이런 이미지를 살려서 노란 눈물로 표현했다. 이 노란 눈물을 담고 사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4. 이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내 모습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모습에 신기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처음 알게 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 기뻤다.

소통 3 학생들의 자아상으로 학생과 소통하기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해 주는 것이 의사소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 '돌' (C형) – 너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돌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너 자신에 대해 변명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성실한 모습 그대로였구나.
- '모자이크' (I형) – 너는 가로세로 정확하게 맞춘 논리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가끔 나의 즉흥적인 행동이 너를 당황하게 했겠구나.
- '해를 쓸는 호랑이' (E형) – 너는 그래서 그렇게 큰 꿈을 가슴에 안고 현실과의 고리감 때문에 힘들어했구나.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했을 때 얼마나 섭섭했을까?
- '파란색폭탄' (A형) – 너의 예술적 감성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어디로튈지 모르는 네가 차분하게 앉아 있으라 했으니 많이 답답했겠다.
- '눈물' (S형) – 너는 늘 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 곁에 서있었어. 네 공부는 언제 하냐는 내 충고가 너를 아프게 했겠다.

“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주고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느낌을 그 사람에게 헌려보낼 수 있을 때, 나는 풍성함을 느낍니다.”

– 칼 로저스 –

특수학급, 그 아름다운 여정

- 우리 반 이야기 -

인천검단초등학교
교사 최성경

교실 앞 벚나무 잎들이 아기 손바닥 만 하더니 이젠 제법 넓어지고, 또 무성해졌다. 反日을 말하는 사람들은 벚나무조차 싫어한다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벚나무를 참 좋아한다.

양상한 나뭇가지에 흐드러지는 꽃을 피워 움츠러든 마음을 열게 하더니 어느새 연두 빛, 초록빛 잎사귀를 내어 녹음을 만들고, 그늘을 만든다.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알록달록한 물들임으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벼찌를 한껏 달아 나무다움을 나타내겠지. 또 자연에 순응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허히 알몸으로 겨울을 맞겠지.

학교마다 한 두 그루씩은 꼭 벚나무가 있기 마련. 우리 학습도 움실(본교에서 붙여진 특수학급명칭) 아이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보조자가 바로 벚나무인 것이다.

4월 달력에는 만개한 벚꽃을 그려주었는데, 5월 달력에는 작은 나뭇잎들이 고개 내미는 벚나무가지로 테두리를 둘러주었다. 교실 달력의 그림과 창 밖 벚나무의 모습이 닮아 있음을 우리 반 아이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우리 아이들이 닮아가고 있음을 나는 안다.

특수학급 교실의 문을 열어보면…

요즘은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1개 학급 이상씩 편성이 되어있어서 일반학급 선생님들에게 특수학급이 익숙할 법도 한데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다.

“학습도움실에서는 어떻게 수업하세요?”

특수학급의 아이들은 통합학급(특수교육대상자가 속한 일반학급)에 소속이 되어있으면서 정해진 교과의 시간에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교과는 대부분 국어, 수학이지만 개별화 교육운영지원팀 협의를 통하여 담임과 특수교사, 학부모가 함께 결정하고 있다

#1. 유리 창밖 벚나무가 아직은 양상할 때

새로 옮겨 온 학교와 아이들에 대한 설레임으로 학습도움실의 문을 열었다. 낯선 나를 보고 반갑게 뛰어와서 안아주는 아이는 다운증후군인 보연이였다. 다운증후군 친구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적고, 모든 사람에게 친숙하게 대하는 사회성이 좋은 특성이 있다. 우리 학습도움실에는 다운증후군인 보연이,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 자폐아 휘재, 진행성 근육병을 앓고 있어 더욱 마음이 쓰이는 호성이, 열심히 해서 똑똑해지고 싶다고 늘 말하는 모범생 현욱이, 더 많이 안아주면서 사랑을 가르쳐야겠다 싶은 현지, 갓 입학한 귀염둥이 예준, 이렇게 6명의 아이들이 서로 다른 학년, 서로 다른 장애 영역, 서로 다른 교육적 수준과 요구로 내게 다가왔다.

3월의 첫 주와 둘째 주는 아이들의 새로운 학급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학급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학급 적응기간을 가졌다. 통합학급 적응기간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특수학급에서 수업하지 않고, 통합학급에서 대부분의 수업을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아마도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제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다.

“선생님, ○○가 너무 소란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도움실에 한 시간 내려 보낼 게요.”

“○○가 수업시간에 할 게 없어요.”

“○○가 할 만한 학습지 좀 보내주세요.”



3월 통합학급 적응기간 길라잡이를 간단히 작성해서 보내드리지만 그대로 되기란 어렵기에 예상된 요청들이다. 통합학급 적응기간 동안 특수학급에서는 아이들의 전년도 IEP(Individual Education Program- 개별화교육계획)를 점검하고, 학부모 개별면담을 통해 새 학년도 IEP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3월에는 통합학급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지원 내용(특수 교육 보조 배치, 수업보조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내용을 담아 특수학급 한 해 삶이의 근간이 될 ‘특수교육 운영 계획서’라는 책 한 권(?)을 만들어내는 부담이 있다. 특히 개별화 교육 운영지원팀을 구성하고, 지원팀 협의를 3월내에 실시하여 아이들마다의 맞춤식 교육계획안이라 할 수 있는 IEP를 작

회적 규칙을 지키고, 맡은 일을 해 내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도울 것이라 믿는다. –

우리 학습도움실에는 3 종류의 학습장이 있는데, 도움실 알림장과 도움실 학습장, 가정학습장이다. 각각의 학습장에는 구분이 명확하도록 큰 글씨의 제목 라벨과 아이들의 이름이 붙어있는데 이렇게 학습장의 라벨을 붙여서 각각의 학습장을 만드는 이 일 또한 아이들과 함께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일 중의 하나다. 부지런히 제목 라벨과 아이들의 이름카드를 프린터 하고 잘라서 종류대로 묶어 바구니에 담아두면 아이들이 학습장 한 권을 다 썼을 때에는 새 노트에 제목 라벨과 자기 이름카드를 바르게 찾아서 붙여 자기 학습장을 만드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한 페이지 분량의 쓰기도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쓰고, 그리는 활동에 흥미를 붙이고, 과제의 분량을 늘여가게 되는



성하는 일도 특수교사로 재직한지 18년째이지만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이제 작성된 IEP를 바탕으로 학습도움실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학습도움실 학습 규칙을 정하고, 매일 매일 습관이 되도록 훈련한다.

예를 들어, 학습장을 종류에 맞게 가지고 가고, 되 가져 오기, 각각의 학습장과 알림장을 구분하여 두는 곳에 갖다 두기, 도움실 오는 시간에 교과서와 필통 가지고 오기 등등.

- 도움실에 올 때 그 시간의 교과서를 꼭 챙겨서 오도록 일러주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 내려오는 교과의 시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돋고, 또 통합학급의 어려운 공부를 피해서 도움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도움실에도 공부하러 온다는 약간의 부담을 갖도록 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이 약간의 부담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

하나의 자극제가 되며, 또 스스로 학습장을 만들고, 과제의 분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작전계획에 딱 맞게 과제의 분량이 늘어나며 스스로 “더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절로 흥얼거리게 된다.

요즘은 대부분 손쉬운 컴퓨터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학습장에 무엇인가 쓰고, 정리하는 것이 웬지 진부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학습도움실 아이들의 대부분은 쓰기 초기 단계이거나 문자 해독 단계에 걸쳐있다. 이 단계의 아이들에게는 반복하여 손으로 쓰는 활동도 동작적 기억을 돋기 때문에 참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도움실학습장과 가정학습장은 교과서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 벚나무에 벚꽃들이 화사한 웃음을 날리고 있을 때

이 꽃들의 웃음을 더 깊이 느낄 시간적 여유를 잃어버리고 분주함으로 4월을 보냈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으로 장애인의 날 안내와 더불어 학습도움실 소개가 담긴 통신문을 만들어 보내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주간을 정하여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게시물을 게시하고, 전교생들이 장애인식 개선 편 버튼을 만들어서 한 주간 동안 가방이나 옷 등에 부착하고 다니도록 하였다. 4월 20일 1교시는 전체 학년이 창의적 체험 활동, 재량 활동 시간으로 편성하여 장애인의 날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감상문을 쓰는 시간을 가졌다.



아침 활동 시간마다 일반학급을 순회하며 가진 장애 이해 ○ × 게임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비장애인 아이들이 장애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잘못된 생각과 편견들을 지워내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비장애인 친구들이 갖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생각들이 자라간다면 장애 친구들의 학교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음을 나는 안다. 그러기에 해마다 4월이면 장애 이해 수업이며, 또 장애 이해 주간을 운영하는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감내한다.

한편 우리 학습도움실 구석구석에서는 아이들과 나의 손이 머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환경구성의 주체로 우리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또 학급의 어떠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돋기 위해서 나는 몇 가지 원칙을 두고 있다.

첫째,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 거리를 제공해 준다. 우리 아이들은 많은 부분에서 누군가 결정해 준 일에만 수동적으로 따라 왔다. – 대부분은 부모님, 선생님이 그 결정의 주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일이나 대상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 학습도움실이었으면 좋겠다.

둘째, 칠판은 교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해 보는 하나의 학습장과 같다.

칠판 한 쪽에는 한 달 한 달의 달력을 아이들이 보기 쉽게 그려주고 또 아이들은 한 날 한 날의 날짜와 요일을 달력을 보며 읽고, 써 보도록 해 두었다. 매일 칠판의 날짜와 요일을 고치는 일을 서로 하겠다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에겐 이 작은 일도 우리 학급에서 큰 역할임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게다. 또한 매 주 월요일엔 주말에 있었던 일을 발표하고, 발표한 내용을 스스로 써 보거나 교사가 발표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어 볼 수 있도록 칠판의 한 쪽 부분을 구성해 두었다.

셋째, 환경 구성은 귀찮아도 1년에 4번 이상은 바꾸며 아이들의 글이나 그림으로 함께 구성해 준다. 조금 힘이 들어도 환경판을 바꾸어 주면 우리 아이들이 일상의 변화를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봄에 대하여 한창 이야기 하고, 봄과 관련한 공부를 한창 할 때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휠체어에 의지하여 겨우 상체만 가누는 호성이가 “선생님, 여름은 도대체 언제 오나요?”라고 질문해서 함께 한바탕 웃었는데 이제 여름이 왔다고 환경판을 만든다. 계절은 살며시 살며시 우리들 곁으로 찾아온다.

#3. 유리 창밖 벚나무에 나뭇잎들이 무성해 질 무렵

우리 도움실 친구들은 나무의 무성함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수목원으로 현장학습을 갔다. 가까이 이웃해 있는 몇 개의 특수학급들이 연합하여 함께 갔었던 현장학습! 나무의 둑치를 안아도 보고, 나무껍질을 만져보고, 나뭇잎을 한 잎 따서 손으로 테두리를 따라 그려보고... 나뭇잎을 머리에 꽂고 달려보고, 나무와 풀들 속에 숨겨진 “나무 이름 꽃 이름” 보물찾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 6월 말에는 1박 2일 캠프를 떠날 생각들로 벌써 아이들의 마음이 들떠 있다. 캠프를 가기 전까지는 내게 ‘캠프’라는 하나의 무기(?)가 생긴 셈이다.

“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캠프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현장학습이나 캠프를 다녀오면 우리는 안내 리플릿과 사진 등을 이용하여 우리들의 현장학습, 캠프 활동을 정리해 본다. 그리고 이젤에 세워 전시해둔다. 각자 한 글자라도 써서 완성한 결과물이기에 얼마나 열심히 보고, 열심히 읽는지 모른다. 우리 학습도움실 6명의 아이들은 읽기나 쓰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가 2명, 단어 중심의 읽기, 쓰기 단계에 있는 아이가 3명,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1~2개의 문장으로 쓸 수 있는 아이가 1명이다. 그래서 읽고, 쓰는 일이 ‘나와 가깝고, 필요한 일’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여기 저기 아이들의 흔적이 묻어있는 쓰기 활동 결과물을 전시해 주고 있다.

우리 아이들도 날이 더워진다는 것은 방학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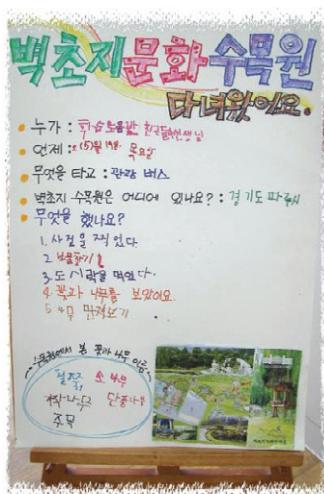
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방학이 다가오면 또 나는 아이들의 IEP를 평가하고, 아이들마다의 방학 과제장을 만들 것이다. 성이가 “선생님, 여름은 도대체 언제 오나요?”라고 질문해서 함께 한바탕 웃었는데 이제 여름이 왔다고 환경판을 만든다. 계절은 살며시 살며시 우리들 곁으로 찾아온다.

#4. 초록의 벚나무 잎들이 곱게 물들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을에 어울리는 색을 물감에서 골라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고른 색의 물감을 마음껏 칠해보도록 하고, 그것으로 가을 나뭇잎을 만들어 볼 것이다. 또 아이들과 함께 목청 높여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가을 길 노래 한 곡을 멋지게 불러 볼 것이다.

#5. 잎을 떨어 낸 양상한 가지에 눈들이 쌓일 때 즈음이면

나는 우리 아이들의 키와 몸이 또 생각이 마음의 길이로 한 뼘쯤 자라있음을 보며 흐뭇해하겠지.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내게 있음을, 또 내가 가르칠 이 아이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 하겠지.



알콩달콩 행복한 유치원 이야기

인천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병설유치원
교사 백수경

이야기 하나

“고맙습니다” 어른에 대한 예절
“괜찮아?” 친구에 대한 배려,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배웁니다. 유치원에서는 친구 사귀기를 통해 사회를 배우고 남을 배려 하는 것을 배우며 자신감을 배웁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유치원 시기에는 기본생활습관이 이루어집니다. 인사하기, 규칙적 으로 생활하기, 나의 일 스스로 하기, 청결한 습관, 적절한 인사말, 질서와 규칙지키기, 정직하기, 절약하기 등 인간의 기본이 되는 인성은 유치원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학습해 기본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와 행동을 배웁니다. 스스로 감정과 충돌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며 사회성을 배우는 곳이지요.



이야기 둘

유치원은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을 통합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고 생활주제 중심으로 5개 발달영역에 통합되도록 구성합니다.

『마음 반짝』
사회생활영역



『몸이 튼튼』
건강생활영역



『창의 솔솔』
표현생활영역



『감성 듬뿍』
언어생활영역



『생각 쑥쑥』
탐구생활영역





교육과정 영역	교육과정 내용	교육과정 영역	교육과정 내용
건강생활	나의 몸 인식하기	표현생활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 찾아보기
	나의 몸 움직이기		예술적 표현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감상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듣기 말하기
사회생활	나를 알고 사랑하기	언어생활	듣기 말하기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읽기 쓰기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기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사회 현상에 관심 가지기		과학적 기초 능력 기르기 수학적 기초 능력 기르기

이야기 셋

유치원 교실은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효과적인 다양한 흥미영역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① 쌓기놀이영역 ② 역할놀이영역 ③ 수·조작놀이영역 ④ 과학놀이영역
⑤ 색종이·바느질영역 ⑥ 음률놀이영역 ⑦ 조형놀이영역 ⑧ 언어놀이영역

이야기 넷

유치원은 유아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놀이란 유아에게 즐거움을 주는 원천이자 자아 실현하는 과정이며, 유아가 지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수단입니다. 실외놀이 역시 교실 밖의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놀이 활동으로 유아의 전인 발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외놀이는 실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활동적인 놀이와 풍부한 감각 경험이 가능한 체험활동으로 새로운 경험을 구성해 나가는 의미있는 학습



- ① 정서함양 및 감각 체험활동 가능한 모래놀이
- ② 텃밭기구기를 통해 식물에 지속적인 관심갖기
- ③ 긴장감 해소가 가능한 종합놀이기구
- ④ 우리 것을 찾아주는 전통놀이
- ⑤ 자연속에 이루어지는 미술활동
- ⑥ 자연물과 함께하는 손꼽놀이
- ⑦ 여러 가지 과학체험을 할 수 있는 물놀이
- ⑧ 자연과 하나 되는 산책활동

이야기 다섯

유치원에서는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학부모 참여수업과
바깥세상을 맘껏 누릴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있습니다.

학부모 참여수업을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나누며 유아와 유치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배웁니다.



- ① 엄마 요기에도 불일래요
- ② 쑥개떡 맛있겠죠?
- ③ 과나코야 맛있니?
- ④ 아빠! 나무가 숨을 쉬어요!!
- ⑤ 제가 만든 떡집에 놀러 오세요

이야기 여섯

유치원에는 유아와 학부모가 함께
만족하는 종일반이 있습니다.

유아의 발달과 흥미 요구에 적합하고 효과적이며 질 높은 종일제 운영을 통하여 부모에게는 안심을, 아이들에게는 행복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유치원에서
몸도 쑥쑥
마음도 쑥쑥
사랑과 감사를 배우며
자란답니다.

교단작가와의 만남 수필과 시의 교감

내 들국화! 들국화!

우연 송영욱

66

- “안 돼요! 선생님~!”

크게 외쳤지만, 말은 나오지 않고 입속에서만 맴돌았다. 가슴만 덜컹거린다. 선생님은 들국화를 시발 택시운전사에게 건네면서 눈짓으로 택시에 올라타라고 명령한다. 택시를 타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허전하다.

‘어서 커서 시발택시를 몰아야겠다.’ -

초등학교에 입학한지도 이제 일곱 달이 지나간다. 학교생활도 적응되어 하루하루가 신난다. 아침 일찍 일어나 늦가을 냉기를 품은 상쾌한 공기를 마신다. 담장 안으로 심어 놓은 팽자나무에 열린 열매가 노랗게 익어가며 내 품는 향기는 은은하고 상큼하다. 사랑채 뒷마당에는 소국(小菊)이 한가득 피어 흘러넘친다. 곧 꽃망울을 판다. 사랑 뒷마루에 하나 가득 널어 말린다. 겨우내 국화차 향기로 온 집안에 가득하다. 끌벌들은 아침이슬을 들펑 머금은 소국(小菊) 속에서 경건한 하루를 맞기 위해 조그만 몸뚱이를 맑은 이슬에 담그고 두 다리로 비비며 양증맞게 씻는다. 오늘따라 감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까치밥 홍시가 쪽빛 가을 하늘 속에서 빨갛다 못 해 선홍색 핏물이 똑똑 떨어질 듯 투명하

다. 안채 부엌에서 가마솥 열리는 소리가 ‘드르륵’ 나면 구수한 햅쌀밥 냄새가 앞마당까지 닿는다.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 흰 쌀밥 한 알 한 알이 투명하다 못 해 탱글탱글하다. 방자 놋주발에 담긴 햅쌀밥은 더 희고 맛이 깊다.

가방을 메고 담임선생님과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 학교로 간다. 가냘픈 코스모스들이 봉우리 가득한 밤이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폭 숙이고 있다. 진홍색 코스모스 꽃봉오리 하나를 따서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워 선생님 흰 블라우스 앞섶에 짓궂게 꽂 도장을 찍었다. 흰 블라우스에 묻어나는 핏물 같은 선홍색 코스모스 꽃잎이 도장모양으로 찍혔다.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행동에 화들짝 놀라며 몸을 피하는 시늉을 했지만, 곧 해맑게 웃어주셨다.

어느새 우리는 *솔당재 밑에 접어들었다. 높직한 언덕에는 보랏빛 들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아침 햇살이 꽃잎 속으로 뚫고 부서져 내린다. 가방을 벗어 놓고 언덕으로 올라가 햇살 가득한 들국화를 한 아름 꺾어 선생님께 드렸다. 선생님은 보랏빛 들



국화 드레스를 입고 코스모스 길을 걸어 나오는 신비한 여신처럼 빛난다.

이제 곧 비포장도로 신작로에 접어든다. 학교까지는 아직도 오리는 족히 남은듯하다. 그때 앞쪽에서 먼지를 피우며 달려오는 시발택시가 멈춰 선다. 곧이어 영화 속 멋진 주인공을 흉내를 내듯 어깨를 들썩이며

“아가씨 들국화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손에든 그 꽃을 제게 주신다면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몸집보다 내시 같이 가는 음성으로 걸어오는 수작이 내 가슴을 찌른다.

“안 돼요! 선생님~”

외쳤지만, 말은 나오지 않고 입속에서만 맴돌았다. 가슴만 덜컹 거린다. 선생님은 들국화를 **시발 택시운전사에게 건네주시면서 눈짓으로 택시에 올라타라고 명령한다. 택시를 타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혀전하다.

‘어서 커서 시발택시를 몰아야겠다.’

마음 깊이 다짐하며 학교로 갔다. 국어책을 펴들었지만 빼앗긴 느낌으로 다가드는 가느다란 보랏빛 들국화 영상에 온종일 우울하다.

* 솔당재 : 충청북도 한 지역이름

**시발택시 : 1950년대 지프차를 개조한 택시

춘천으로 가는 밤 기차 1

춘천행 기차는
두렵게
때로는 감미로운 소리를 내며
다가옵니다

한줄기 빛이 그리워
밤 호수湖水는
못가에 기차를 매어두었고

기차는
깊은 물이 두려워
평행선을 그리며
나지막하니 기적을 울립니다

그리움으로 빛어 낸
임 닳은 아이 하나
별빛 담은
호수가 기차를 그리다
잠이 듭니다

*송영욱 시집 《모래바위의 사랑》 중에서



우연 송영욱선생은 한국문인협회 홍보위원으로 현재 재능유비쿼터스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 “그리움은 들꽃바다” 주소 <http://blog.daum.net/55syw>

입학사정관제, 이것만 알면 백점 교사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사 전 병준

입학사정관제, 점점 그 비중이 늘고 있다는데…

구 분		2010	2011	2012
수 시, 정 시	선 발 인 원	24,622	36,896	41,250
	선 발 비 율	6.5	9.6	10.8
수 시 모 집	모 집 정 원	219,024	232,781	237,734
	선 발 인 원 (%)	22,787 (10.4)	34,408 (14.8)	38,083 (16.0)

실제로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학생들의 수는 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선발과정의 투명성,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 등과 관련하여 그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지만, 성적 우수자만이 아닌 대학의 교육 이념과 전공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한 공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입학사정관제는 그 선발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지금처럼 10~15%대에 머문다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68

입학사정관이 보는 학생의 특성은?

요 소	주 요 내 용
학생의 특성	인지적 특성 사고력 : 이해력,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적성 : 관련 분야에 대한 소질, 학업 적성, 대학 또는 학과 수학 능력 등 표현력 : 의사소통능력(토론/ 설득력) 등 정의적 특성 인성 : 자신감, 적극성, 리더십, 책임감, 목표지향성, 자기조절능력, 도덕성, 사회성 등 흥미 : 지적호기심, 열정, 학습동기 등 태도 : 가치관, 학습태도 등 잠재력, 미래 성장가능성, 학과 적응 가능성 등
대학 및 모집 전형에의 적합성	건학 이념 및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인지 여부 리더십 전형, 사회적 배려 전형 등 모집 전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
교육환경	가정환경, 교육여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특성 등

입학사정관제의 주요 평가 요소는?

학생부 + 자기소개서	교과성적 (지원 전공관련 과목 성취여부), 학년 변화에 따른 성적 변화추이, 비교과 – 각종 교내활동 자료
교사 추천서	참고 자료로 활용
포트폴리오	학교생활 입증 자료,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의 입증 자료,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의 입증 자료
면접	서류 확인, 각종 역량 평가

입학사정관 전형은 서류평가와 면접이 중요한 평가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서류 평가의 기본이 되는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추천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원자의 가치관, 생활 태도, 학업에 대한 열정, 잠재력, 성취동기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특성을 잘 살려 서술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가 되는 부분에 대한 진솔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솔함입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를 통한 포장보다는 서툴지만 진솔하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징과 장점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여 실행에 옮기는 자기주도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하여 느끼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학교성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흔히 입학사정관제 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열정, 소질, 잠재력, 봉사성, 리더십, 창의성, 성실성 등을 가장 중요한 평가의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학업성취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에 전혀 성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교 1등과 전교 15등을 등수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면(비슷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이를 동일선상으로 보고 학업 이외의 요소로 당락을 판가름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학습 능력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업 능력**

을 기본으로 다양한 평가의 요소들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입학사정관제에서도 역시 중요한 요소는 지원하는 전공 관련 과목의 학업성취도와 성적 변화 추이 등입니다. 이 기본적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실적과 재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현행 입학사정관제를 통과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대학의 일부 전형의 경우 교과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전혀 보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신설하기도 하였으나 선발 인원도 적고 아직은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이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물론 모든 활동들은 학생이 원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이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보와 조언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모하게 벼려지고 낭비되는 시간과 노력도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를 통하여 배우는 부분도 적지 않겠으나 그러기에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하라.

학생지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학습 지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물론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입학사정관제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구안해야 합니다.

관심분야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활동을 강조하라.

진로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면 그 분야에 대한 다양한 활동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외부적인 대회나 행사의 참여가 아니라 교내에서의 활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충분히 학생이 느끼고 변화될 수 있을 만한 활동이라면 가장 좋은 스페인 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라.

대개의 입학사정관들은 고교에서의 학습 과정, 입학 후의 학습 계획, 미래의 계획을 주로 검토하며 그 연계성에서 주로 학



생들을 평가합니다. 특히 고교에서의 학습과정에서 학생이 느낀 점, 좌절하거나 실패한 경험을 통하여 배운 점, 또는 참여했던 활동에서의 느낀 점 등을 중요하게 평가에 반영하므로 이를 학생들이 인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이끌어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화려하고 특이한 경력의 성취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변화의 계기와 변화를 위한 노력 등에서 진솔함,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심층면접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출한 서류 내용에 대한 검증이고 다른 하나는 학과나 해당 분야에 대한 교과적 지식이나 폭넓은 생각을 묻는 유형입니다. 결국은 모든 심층면접의 과정은 해당 서류와 실적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말 잘하는 학생을 뽑겠다는 의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한 학생이라면 나올 만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접근이 아닌 해당 분야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을 위한 거짓을 연습하는 일은 쏟은 힘과 정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의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한 학생이라면 그를 통하여 깨닫고 느낀 점들을 잘 조직하고 서술하는 것만 주지시키면 충분합니다.

학생부 작성은 꼭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물론 요즘은 에듀팟에 학교에서의 활동이나 교외활동을 기록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매우 풍부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건 결국 학생의 생각이고

학생 자신의 기록일 뿐입니다. 오히려 추천서보다도 더 자세하게 학생을 이해시킬 수 있는 공적인 자료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활동 내용을 다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의 학생이 참여한 활동을 기록하더라도 학생의 활동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달라지고 변화된 학생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면담이나 감상문, 소감문 형태를 통하여 교사가 확인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학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결국 얼마나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학생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내용의 질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학교생활

대학 입학 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저런 불만과 문제점들을 지적하지만 참 희한한 일은 학교생활에 충실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학생들이 배신당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애쓰는 교사의 눈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보이게 되고 그런 학생들이라면 당연 입학사정관의 눈에도 띄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과연 그러한 학생들을 가려서 뽑는지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하는 것도 교사로서의 임무이자 제도를 올바르게 만드는 방법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글 쓰는 선생님을 위하여



동화작가 · 단국대학교대학원

강사 이 동 렐

자랑스러운 선생님, 부러운 선생님

만약, 우리 선생님이 작가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분명 글을 쓴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때로는 귀찮다 못해 곤욕스러운 일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글 쓰는 일에 취미가 없는 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글 쓰는 일을 곤욕스러워하면서도 평생 글을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좋은 싫든 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자면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이나 몸짓언어로는 표현의 한계가 있고 기록성이 약하기에. 보통사람들이 이럴진대 하물며 남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런데 글을 쓴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말은 청산유수인 사람도 펜만 들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게 대부분이다. 이게 문제다. 도대체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기본적인 쓰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사가 쓰는 것을 겁내거나 귀찮아하면 그 반 어린이들에게도 쓰기 교육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있듯, 글쓰기 기피증이 대물림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사들은 자기 반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글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어차피 평생 쓰며 살아가야 할 거라면 좀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는 없을까. 작가는 아니더라도 ‘글 잘 쓰는 선생님’ 소리 들으며 교단에 설 수는 없을까.

글로 튀는 선생님 !

남이 쓴 좋은 글을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감동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땐 글 쓴 사람의 재주가 은근히 부러워진다. 자기도 모르게 글을 써 보고 싶은 충동도 일어난다. 그래서 슬쩍 펜을 잡으면 머릿속에 떠올랐던 쓸 내용은 안개 속의 여인처럼 가물가물 사라져 버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거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겪는 일이다. 이 단계에서 포기하면 교사 자신도 뒷맛이 개운치 않고, 그 반 학생들도 결국 ‘글치(?)’가 되고 만다.

이를 극복하여 ‘글쟁이 선생님’으로 거듭 나야 한다. ‘멋쟁이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또래 집단에서 자기 혼자만 관을 하나 쓰고 있는 거와 같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 준다. 전교사가 모두 맨머리로 강당에 모였는데 한 교사만 멋진 모자를 썼다면 돋보일 수밖에 없다. 문장 중에서 드러냄표를 한 낱말이거나 밑줄을 그은 단어처럼 한눈에 튀어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글쓰기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모든 특기에 다 해당되는 말이리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쓰기’ 교과서가 있다. 이 교과서를 충실히 가르치면 어린이들은 글쓰기에 대한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교사도 이 교과서만 충실히 가르치다보면 글쓰기 실력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히 대하기 쉽다. 바빠서, 취미가 없어서,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재미가 없어서… 등등의 이유로. 또 교대 다닐 때도 동시·동화·동극본의 창작 실기 교육 정도는 꼭 받고 나와야 한다. 창작 과정을 배우고 나오면 현장에 교사로 임했을 때 쓰고 싶은 충동을 많이 일으킬 것이다. 학교나 교실에서 일 년 내내 만나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 생활이 모두 아동문학의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바쁜 교사가 짬이 더 많은 법이니. 만약에 그런 과정을 교대에서 제도적으로 거치게 된다면 현장의 작가 교사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아울러 자연스레 쓰기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문학이 넘치는 학교가 되리라.

예전에 우리가 교대를 다닐 때도 아동문학 창작 실기는 없었다. 뜻 있는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써 보라고 권했을 뿐이다. 그런데 교사직을 가진 아동문학가가 참 많이 나왔다. 지금보다 2년을 짧게 배웠는데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글로 튀는 선생님이 많았다. 어느 도·어느 지역의 아무개 선생님하면 대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스카웃되어 좀더 나은 환경으로 떠난 교사들이 꽤

되었다. 글쓰기 한 가지로 전국 유명인사 데에 올랐던 것이다. 물론 뽑혀 나가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은 아니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작을 하겠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종당은 자기만족이다. 인간은 문학성으로 자기만족이 이뤄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멎이 어우러지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워진다. 깊이도 뒤따른다. 그런 사람은 남을 대할 때도 긍정적이고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저절로 즐겁고 자긍심을 갖게 된다. 그러니 담임선생님을 알게 모르게 닮아갈 수밖에.

어느 작가의 문단 도전기

나는 71년도에 첫 발령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경기도의 최고 산골인 양평군, 그 중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에 있는 학교였다. 지금은 유명 관광지로 변했지만 당시만 해도 비포장길을 13킬로미터나 걸어야 하는 벽지 중의 벽지였다. 학생의 대부분은 화전민의 자녀들이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동기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도시에 나왔었는데, 친구들은 나보다 다 교통이 좋은 곳에 발령을 받았다. 서울 가까운 곳에 발령받은 친구는 야간대학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친구들한테 지지 않기 위해 그 산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두 달을 생각했는데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교사들이 보던 ‘새교실’ 이란 잡지를 뒤적거리다가 무릎을 쳤다. 그 잡지에는 ‘교원문단’이라는 꽉지가 있었다. 일선 교사들이 글을 써서 투고하면 유명한 문인들이 심사해서 교단 작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였다.

나는 그날부터 밤 이슥하도록 호롱불 아래서 원고지를 끄적거리기 시작했다. 창작법도 전혀 모르면서 그저 남이 발표한 글을 보고 비슷한 이야기를 감으로만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니 완전 모작이었다. 그달에 동시나 동화가 발표되면 그 장르를 흉내냈고, 소설이나 희곡이 발표되면 또 그걸 따라 끄적거렸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동문학에 관한 창작서가 없었다. 소설이나 시는 있었지만, 나는 장르의 성격 파악도 못한 채 그저 무턱대고 써 제꼈다. 일 년에 라면 박스로 하나씩은 원고지를 없앴을 것이다. 그러기를 2년, 학교를 옮긴 곳이 나환자 미감아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거기서 또 3년, 동기생과 결혼을 한 후 다시 글을 쓰기 위해 복식수업을 하는 분교로 옮겨 문학 청년 생활이 3년 더. 도합 8년간 신춘문예 낙방! 그러니까 나는 8년간 신춘문예만을 위해 투자한 셈이다. 참 지지리도 재주가 없는 놈이었다. 긴 기간 동안 투고하고 기다리는 초조함과 설렘, 그리고 낙방의 쓰라림은 내 성격을 ‘오기와 끈기’ 덩어리로 변형시켜 놨다.

8전 9기!

1979년, 나는 투고생활 9년만에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에 당선되었다. 나는 당선 소식을 접하고는 기쁘기는 커녕 혀탈했다. 오르고 싶은 봉우리를 너무 늦게 올라서 그런 모양이었다. 오히려 투고하는 시절이 더 즐거웠던 거 같다. 그때는 작품에 대한 책임감도 별로 느끼지 않고 내 이름 석 자가 문예지에 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또 주위에서는 아직 문단데뷔도 하지 못



한 나를 ‘작가’라는 칭호로 불러주니 우쭐했다. 나는 소위 ‘글 쓰는 선생’으로 유명세를 미리 타고 있었다. 그리고 옮겨가는 학교마다 그 꼬리표는 늘 따라다녀 차별화시켜 주었다.

이처럼 처음에는 도시 발령받은 친구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재미로, 그 후에는 작가 정신으로 글을 쓰는 지가 40여년이 넘었다. 문단 생활만 33년째다. 그 동안 대여섯 개 받은 아동문학상도 그렇기는 하지만 6~2 읽기 교과서에 13년째 수록돼 있는 내 동화 <마지막 줄타기>가 훈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래 이런 청탁도 받았고, 인천시 다섯 초등학교

교가도 작사했으며, 대학 강단에도 서고, 내 명예를 올리며 즐거운 글 쓰는 일로 몇십년 동안 밥 벌어 식구들 먹였으니 그보다 더 장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취미로 시작한 글쓰기가 부와 명예를 더해주는 직업이 될 줄이야!

글쓰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흔히 보통사람들은 글쓰기 같은 행위는 별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 자질의 유전인자를 지니고 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치부하기 쉽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8년 떨어진 내 이야기를 한 것이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글쓰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분야다. 특히 교사와 같이 고급 학력과 지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정말 모두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해도 글쓰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지름길을 한 가지 소개하고 싶다. 글쓰기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지도하다보면 제일 먼저 부닥뜨리는 문제가 글을 길게 끌어가지 못하고 짧게 쓴다는 점이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막상 글을 쓰려고 펜을 잡으면 머릿속에 생각났던 것들이 죄다 꼬리를 감추고 만다. 입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무궁무진하던 글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글수다(?)를 떨 줄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럼 글수다는 어떻게 떨까?

예로, <어제 동생과 다투다 엄마한테 혼났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어린이들 일기장에서 많이 보는 문구다. 글수다를 떨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이 한 줄을 써 놓고는 더 쓸 게 없다고 항변하듯 말한다. 어른도 말은 하지 않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우선 이 문장에 ①대화체와 ②묘사를 자세히 해 보자. 어린이를 지도할 때는 교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유도발문을 하고, 교사 자신이 쓸 때는 경험에 비춰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을 주고받는가를 떠올리면서 자세히 써 나가면 글은 길어지게 된다. 글이 길어진다는 것은 자세해져 실감이 나고, 상황이 자세해져 실감이 나면 읽는 이가 빨리 동감하게 된다. 감동받는 글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일 때 아무 제목이나 가지

고 원고지를 예닐곱 장 정도는 채울 수 있어야 글쓰기의 기본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정도면 좀더 수준 높은 지도도 가능해 진다. 그 수준이 못 되는 어린이한테 고급 기능을 지도하면 머리만 아플 뿐이다.

글을 길게 쓰는 학습 훈련 과정으로

- 동생과 왜 싸웠니?
- 동생과 싸울 때 주고받은 말을 옮겨 써 볼래?(대화체)
- 옆에 있던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대화체)
- 그때 엄마의 표정은 어땠어?
(표정묘사)
- 동생하고 싸운다고 야단맞은 네 속마음은 어땠어?
(심리묘사)
- 엄마를 믿고 약 올리는 동생이 어떻게 생각됐어?
(심리묘사)
- 동생의 표정은 어땠어? (표정묘사)
- 너는 엄마의 말에 뭐라고 말꼬리를 달았어? (대화체)
- 그 말을 들은 엄마의 반응은 어땠어? (대화체와 묘사)

등등으로 자세히 써 나가면 한 문장이 열 문장도 넘을 것이다. 어린이 글쓰기 지도나 자기 스스로 글쓰기 실력을 키워 나가는 방법으로 한번 활용해보시도록. 한번 그 길을 터득하면 그 다음은 알아서 찾아진다. 소위 문리가 터지는 것이다.

우선 처음에는 글을 길게 쓰는 난제를 점령하고, 다음에는 자기가 쓰고자 하는 장르의 글 성격에 맞는 글을 쓴다. 그 다음으로 문학성을 높이는 일에 열중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작가 덤에 올라 있을 것이다. 설사 작가라는 칭호는 얻지 못하더라도 ‘멋진 글쟁이 선생님’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을 것이다.

어떠세요? 이렇게 쉬운 글쓰기인데 아직도 멋진 글쟁이 선생님이 되는 걸 주저하시나요?

선생님, 건강하십니까?

인천고잔고등학교
교사 박 경 선

허리가 아프십니까?

요통의 가장 큰 원인은 자세불량과 약한 허리 근육. 큰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오는 것이어서 간단한 자가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허리를 망치는 11가지 자세

1. 허리를 좌우로 비틀며 '두두둑'소리를 내고 시원해 하는 것.
2. 푹신한 침대에서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것.
3. 가방을 한쪽으로만 드는 것.
4. 엉덩이를 뺀 자세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5.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지 않고 앉는 것.
6. 경사진 곳에 오래 서 있는 것.
7. 두꺼운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고 오래 앉아 있는 것.
8. 딱딱하고 밭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
9. 높은 곳의 물건을 내릴 때 발받침대를 사용하는 대신 뒷꿈치를 들고 팔을 쭉 펴 내리는 것.
10. 선 채 허리만 숙여 아기를 들어 올리는 것.
11. 베개나 쿠션을 등 윗부분이나 목에 대고 TV나 책을 보는 것.

※ 요통의 예방운동에 '등산'이 제일이라고 한다.

허리 환자의 70%는 단순요통이고 다리까지 저리면 "디스크병" 가능성이 크다.

관절이 아플 때는 무조건 쉬는 것이 제일이다.

척추에는 뼈마디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디스크라는 것이 있다. 디스크의 수액이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는 것이 흔히 허리디스크이다. 허리디스크의 자가 치료법의 핵심은 상체를 들어주는 것. 허리띠 매는 곳을 중심으로 상체의 무게를 위로 옮겨 하체와 분리 시켜 줌으로써 디스크 내의 압력을 줄어 들게 하는 원리이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팔걸이가 달린 의자에 앉아 두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두 팔을 펴서 몸통을 들어 올린다. 이때 하체의 힘을 쭉 뻣다.

책상이나 침대 난간을 어깨 너비로 잡고 두 팔을 쭉 펴서 팔로 상체의 체중을 지지해주고 하체는 자연스레 땅에 늘어뜨려도 좋다.

학교운동장에서 두팔로 칠봉 매달리기를 하되 힘을 뺀 하체의 발은 땅에 닿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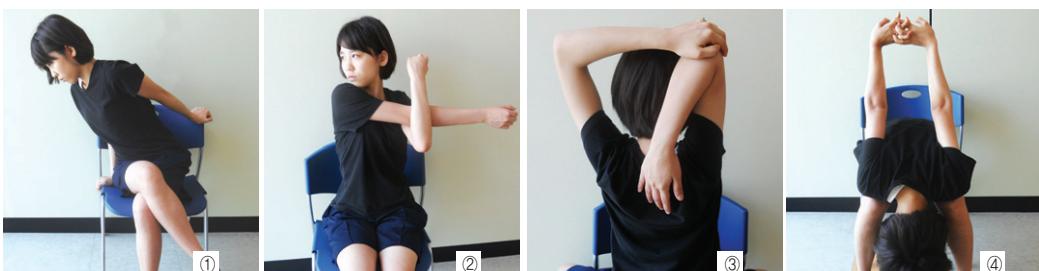
어깨가 뭉치셨습니까?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책상 앞에 긴시간동안 앉아있어야 하는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어깨뭉침으로 고통을 호소한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어깨가 뭉치기도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어깨뭉침 풀기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어깨뭉침 푸는 법으로 어깨를 쭉 펴야합니다. 어깨가 결리면 나중에 허리까지 아픕니다, 어깨가 쳐져있거나 앞으로 구부려져 있으면 목과 허리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2.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어깨뭉침에 효과적입니다. 베개는 높고 푹신한 것보다 낮고 딱딱한 것이 잠자 때 목 근육을 풀어줍니다.
3. 어깨뭉침 푸는 법으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해 단단하게 굳은 어깨근육을 풀어줍니다. 근무 중 앉은 자세에서 자주 어깨를 안쪽과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돌려주고 목을 앞뒤로 움직여줍니다.



뭉친 어깨 풀어주는 체조 방법



1. 오른쪽 손으로 의자 바닥을 잡고 왼쪽 손은 의자 윗부분을 잡는다.
이 상태에서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어 어깨와 턱을 오른쪽 바닥쪽으로 잡아당긴다.
이 자세를 5초 정도 유지한다.
2. 오른팔을 왼쪽 방향으로 짹 편다. 왼쪽 팔을 구부려 오른쪽 팔꿈치 부분과 교차시킨다.
오른쪽 어깨 너머를 쳐다보면서 팔꿈치를 왼쪽 어깨 쪽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10초 동안 스트레칭 상태를 유지하며 반대쪽으로 반복한다.
3. 오른쪽 팔을 머리 뒤쪽으로 접어 오른쪽 귓부분에 닿게 한다.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는다.
5초 동안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의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으로 움직여준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한다.
4. 깍지를 끼어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하게 해서 두 팔을 천장쪽으로 쭉 뻗는다.
20초 동안 스트레칭 상태를 유지한다.

목이 걸리십니까?

경추(목뼈)는 C자 곡선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생활습관과 외상으로 인해 목뼈의 C자 곡선이 변형되면 목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목뼈 변형의 대표적인 예는 일자목이다. 일자목은 머리의 하중이 목으로 집중되어 목뼈의 디스크의 노화를 가속시켜 목디스크를 유발하게 된다.

목디스크를 유발하는 일자목에 좋은 스트레칭을 알려드립니다.

1. 일자목 운동

-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마주모아 목덜미의 경추 부분에 댄다
- 천천히 목을 뒤로 젖혀 그대로 1분 동안 있다가 바로 세운다. 5회 반복한다
- 효과 : 경추의 전반적인 스트레칭 효과를 내면서 일자목을 교정한다.



2. 흉쇄유돌근 이완운동

- 무호흡 상태에서 실시해야하므로 먼저 숨을 충분히 들이마신 다음 천천히 내쉰다.
 - 숨쉬기가 끝나면 숨을 멈춘 다음 양쪽 어깨를 들어올리면서 천천히 목을 뒤로 젖힌다.
 - 목관절 마디마디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5초동안 그대로 있다가 목을 원래대로 세운다 (어깨는 그대로 들어 올린 상태로)
 - 무호흡 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쪽 어깨를 큰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린다음 숨쉰다
- 다음 4동작을 연속해서 6회 반복한다.



- 효과 : 수시로 꾸준히 실시하면 흉쇄유돌근의 긴장을 풀어 통증을 해소해 준다.

3. 등척성 운동

- 이마에 손바닥을 대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려는 목근육의 힘을 저지한다.
- 양손을 깍지 끼어 뒤통수를 대고 고개를 뒤로 젖히려는 목근육의 힘을 저지한다.
- 머리 양옆에 번갈아 손바닥을 대고 목이 움직이려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저지한다.
- 이마에 손바닥을 대고 고개를 비스듬히 돌리려는 목근육의 힘을 저지한다.

각 부위를 6초씩 5회 반복한다. 하루에 4~5세트 실시한다.



• 효과 : 운동하고자 하는 근육에 힘을 줌으로써 근육을 강화시킨다. 목 근육이 미는 힘만큼 손으로 베티는 방식으로 흉쇄유돌근 이완운동 후 바로 실시하면 좋다

4. 승모근 운동

- 원손 손바닥을 머리 위로 올려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에 댄다.
- 손바닥 힘을 이용해 머리를 왼쪽 어깨방향으로 지그시 누른다. 이때 오른쪽 어깨는 아래로 내린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실시한다.
- 얼굴을 옆으로 반쯤 돌리고 한쪽 손바닥을 정수리 부분에 댄다.
- 45도 각도로 앞으로 고개를 지그시 누른다.



• 효과 : 경추의 측굴 근육을 이완시키고 승모근을 풀어 통증과 두통을 해소해준다.

5. 대흉근 운동

- 앓은 자세에서 몸 뒤로 양 팔을 돌려 깍지 낀다.
- 어깨는 펴고 가슴을 앞으로 내민 상태로 10~15초 동안 3~5회 반복한다.
- 양팔을 그대로 뒤로 들어올리고 10~15초 동안 그대로 유지했다가 내리기를 반복한다.

- 효과 : 등이 뻐근한 통증 해소. 견갑골 사이의 근육을 죄듯 견갑골을 모으는 게 포인트이다.



참고자료

- <http://alijajungbobox.net> 일찌정보상자
- <http://spruce772.blog.me>
- <http://blog.naver.com/sopiat>

교육, 당신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82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인천주안도서관 주무관 윤은숙

84 학생과학관에서의 생활과 나의 삶

인천학생과학관 해설사 조미숙

86 진정한 자식사랑이 무엇일까?

인천후정초등학교 학부모 류정하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
주무관 윤은숙

내가 처음 도서관을 만난 건 고등학교를 입학한 뒤였다. 처음 도서관을 갔을 때 서가를 꽉 채운 책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흥분과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도서관을 보거나 이용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는 도서관이 없었고, 중학교 때 학교도서관은 늘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내부조차도 볼 수 없었다. 고등학교를 진학한 후 처음으로 도서관을 만났으니,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이다.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는 학교도서관이 아주 근사하게 운영되었고 사서선생님까지 계셨으니 생각해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몇십 년을 앞서 간 선구자였던 것 같다.

우리학교는 홀륭한 학교도서관 때문인지 학생들의 독서활동도 활발하였다. 나도 학교도서관을 통하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데미안」, 「제인에어」를 처음으로 접했고 「부모은증경」, 「생활의 발견」, 「신곡」 등을 읽으며 감동적이며 어려운 책을 읽어냈다는 자신감도 얻었으며, 「토지」 시리즈를 빌려와 밤을 새워 읽으며 책을 읽는 재미와 책이 주는 감동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과 나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곤 하였다.

고교시절 선생님의 독서교육은 지독하리만큼 대단했다. 끊임 없이 책읽기를 주문하셨고 학생 한명 한명에게 맞는 맞춤형 독서지도를 해 주셨다. 책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기록을 하게 하는 등 독후 활동도 빼놓지 않으시고 점검하셨다. 선생님의 독서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은 많은 학생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고 나 역시 자발적인 독서로 책 읽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으며 그 결과물을 지금까지 보물처럼 보관하고 있다.

요즘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자유로운 학생선발 방식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략적 독서나 독서포트폴리오 등 독

서에 대한 스펙 쌓기는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고교시절 나의 독서 활동과 기록들이 입시에 활용은 못하였지만 그때 내가 읽은 책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활용되었고 사서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공공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였다. 업무를 맡고 현장에 나가 보았을 때, 대부분 학교도서관은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 있었다. 나의 중학교처럼 학교도서관을 잠가 놓은 학교도 있었고, 신간은 거의 없이 오래된 전집류만 비치되어 있는 학교, 교과서 보관 장소가 되어 창고처럼 되어버린 학교 등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은커녕 자료대출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마저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서관 담당 선생님을 지원하며 함께 열심히 준비하여 내가 지원한 학교도서관이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자료대출을 시작하였을 때 함께 감격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다.

이 후 7차 교육과정이 21세기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내세우며 학교도서관이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면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고 전임 사서교사가 확보되며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 등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니 정말 고맙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대가 변하면서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변화 등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주안도서관의 사례를 들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추어 2009년부터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학습관을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더욱 빛을 발휘하고 있는 노인학습실은 취



미교실 위주에서 벗어나 노래교실, 한글교실, 컴퓨터 강좌 등 어르신의 사회, 경제적 참여기회 확대와 계층 간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에 과제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학교교사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도서관을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학습지원자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e-Book이나 오디오북 등 전자 자료에 대한 서비스와 이용도 증가하며 국회도서관이나 국가전자도서관 시스템에 구축된 목록정보, 원문정보도 제공하는 등의 웹서비스도 점점 중요한 업무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든 학교도서관이든 각자의 역할이 있고 독서교육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

진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활동의 장으로, 독서교육의 장으로 자료 및 정보제공의 장으로 계속적인 협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독서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정보사회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독서 교육은 교육계의 화두로 자리 잡았다. 독서교육의 시작은 좋은 책을 고르는데서 시

작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이 바로 독서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책은 밝고 고운 심성을 길러주고 학생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꿈과 희망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다만 입시를 위한 주입식 스펙 쌓기 독서가 아닌 자율적이고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주체적인 자아 정체성을 자유롭게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독서교육이 정착되었으면 한다.

인천공공도서관은 올해 1월부터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도서 대출중 하나로 최대 20권까지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제도로 책을 좋아하는 이용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통합도서서비스 실시 이후 공공도서관에는 새로운 인상적인 풍경이 하나 생겨났는데 바로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오는 가족단위 이용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서관에 와서 다양한 종류의 책들과 만나고, 그 가운데서 좋은 책을 고르고, 빌려가는 자연스러운 이용 모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독서교육이다.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다'라고 말하였다. 나도 고교시절 처음 만난 학교도서관에서 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았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이 모든 사람의 꿈을 키워주는 희망의 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 내가 꾸고 있는 꿈이다.



학생과학관에서의 생활과 나의 삶

인천학생과학관
해설사 조미숙



84

오늘도 나 과학해설사 조미숙은, 백운산의 정기를 머금은 맑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삼키고 ‘파이팅’을 맘속으로 외치며 학생과학관에서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본다.

하루의 일과는 호루라기 “뻬이익”소리로 시작된다.

“자!! 학생들 차례차례 버스에서 내려 학생과학관 앞에 정렬하세요”

“와” 신난다! 와글와글… 시끌시끌…

연구원 행사 중 하나인 1일 과학탐구교실 학생들의 왁자지껄

한 소리에 과학관의 고요한 정막이 깨지며, 학생과학관 첫순인 초등학생들이 재잘거림을 멈추지 않은 채 천체투영실로 입장한다.

“학생들 우리과학관 천체투영실은 남반구 4,500개 · 북반구 4,500개 · 총 9,000개의 별을 투영할 수 있는 플라네타리움이 설치되어 있고 천정의 둥그런 돔 스크린을 통해 마치 밤하늘을 보는듯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 낮에도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곳은 여기 학생과학관 천체투영실 밖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의자 옆에 버튼을 눌러 편하게 누워주세요.”
조명이 꺼지고 천체투영실은 곧 어두운 적막과 함께 천장가득
별이 쏟아지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되면 학생
들은 재미있는 밤하늘 별들의 세계로 빠져든다.

이렇게 천체투영실의 별자리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는 과학관의 어린손님, 귀여운 유치원 친구들이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휘둥그레 선생님 구령에 맞춰 과학관을 즐지어 들어온다. 선생님을 행여 놓칠세라 짹꿍 손을 꼭 잡은 채 선생님 뒤를 졸졸 따라 1층 꿈돌이관 관람을 시작한다. 이곳에는 유치원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동산과 알록달록 산호수족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빛깔의 열대어들이 놀고 있는 대형수족관이 있다.

“선생님, 이거 살아있어요?”

“그럼요. 다 살아있는 진짜 물고기지요.”

“우와!” 감탄사를 연발하며, 신기하고 아름다운 바다 속 물고기세상을 감상하다.

특히 우리나라 하천이나 둑방에서 볼 수 있는 물방개, 소금쟁이, 계아재비등이 전시되어있는 수서곤충코너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어렵게 뛰어놓던 동식의 세계로 이끈다.

4층 미래과학관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로봇 앞에선 6개의 로봇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일사불란한 동작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절로 흥에 겨워 같이 로봇이 춤추는 동작도 따라해 보기도 하며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엔 어떤 로봇이 만들어질까를 상상해 본다.

‘숙제를 대신해 주는 로봇, 학교를 대신가는 로봇, 게임점수를
하나 올려주는 로봇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블랙홀에 빠져 어질어질 평형감각을 잃은 채 휘청대기도하고 회오리바람도 만들며 토네이도의 워리도 생각해 본다.

1층 꿈돌이관부터 5층 과학체험관까지 다양한 220여종의 전시물을 관람하면서 학생들은 때론 고개를 갸우뚱 거리기도하고 재미있는 전시물 앞에선 장난도 치며 무한히 펼쳐질 미래과학 도의 꿈을 맘껏 키워본다.

학생과학관 구경을 신나게 하고 나면 어느덧 배가 고파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간식을 들고 삼삼오오 짹을 지어 6층 휴게실 혹은 야외자리밭으로 밤걸음을 재촉한다.

자라나는 우리나라 미래의 일꾼들아

너희들은 이 달에 커서 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니?

로켓을 만드는 과학기술자가 되고 싶니?

광활한 우주를 관찰하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니?

아닐 지구 탄생이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지식학자가 되고 싶니?

오늘 학생과학관에서의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체계적인 과학 체험활동의 경험을 계기로 너희들의 무한한 과학적 잠재력을 계발하여 세계로 향하는 과학 꿈나무로써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수준 높은 자질을 갖추길 바란다

해가 뉘엿뉘엿 멀리 인천대교에 걸릴 때 쯤,
오늘 하루 학생과학관을 지나쳐간 아이들이 웃음소리와 재잘거
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메아리친다.
좀 더 많은 지식을 좀 더 재미있는 얘기를 전하지 못한 아쉬움
이 가슴속에서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듯하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조용해지는 늦은 오후에 ‘우리 학생과학관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따뜻한 추억과 무한한 미래과학에 대한 희망을 갖고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과학해설사로 거듭나기’를 다짐해본다

학부모의 글

인천후정초등학교
학부모 류 정 하

진정한 자식 사랑이 무엇일까?

옛 어른들은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하시면서 또 ‘배워야 산다.’ 하셨습니다. 본인들은 헐벗더라도 자식 교육만큼은 반드시 시키려는 의지가 컸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부모들은 자신이 자라고 배웠던 과거를 생각하며 더 나은 자녀 교육에 무척 애쓰고 그릇 수보다는 질 좋은 그릇을 위해 아이 낳기를 무척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획에 없는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전생에 역적만 낳는다는 아들만 셋을 둔 억척스러운 엄마가 되었습니다. 물론 내 자식이라 예쁘고 귀해서 학교 일까지 도맡아 돌아 다녔고 등에 작은 애를 업고 이리저리 뛰어 다녀도 마냥 좋고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질없는 짓이란 생각이 들자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나중에는 “애 스스로 잘 하겠지.” 하는 무책임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보다 더 최고였으면 하는 욕심으로 하나님부터 열 가지 다 간섭했는데 “너 알아서 하라”며 외면했습니다.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해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관성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올해 큰 아이가 6학년인데 학교에서 학습종합 능력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의 목적은 학습과정에 있어서 습관적, 행동적, 전략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청소년의 현재 학습상태를 반영하여 향후 자신의 노력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학습변화가 가능하다 합니다. 그런데 검사결과가 좋지 못해 담임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의 믿음과 노력으로 좋은 공부습관을 바꾸자며 상담하고 집에 오는 길에 지금껏 큰 아들들에게 솟아왔던 내 가슴속 모래시계가 멈추더니

결국 내 손으로 부셔버렸습니다. 그 동안 다니기 싫어하던 학원들을 다 그만두게 하고 학교숙제와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용기를 내어 학습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학원에 집착을 버리자 아들과 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을 갖고 격려와 가르침을 주신 담임선생님 덕분에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늘어가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글귀에 ‘교육은 인간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이 잘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부모와 선생님은 올바른 교육관의 안내자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책임감을 일깨워 줍니다.

요즘엔 학교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참 부지런합니다. 학생들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학교는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 운영의 실례를 구축하려 하고, 학부모는 다양한 학교 참여 활동으로 자녀 교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선생님과 학부모간의 교류를 위해 학부모회 조직 단체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교 참여와 활동을 강요하자 학부모들은 형식적인 학교 참여를 점점 피해가려 합니다. 저 또한 작은 임원에서부터 회장이라는 감투도 써보고 학교 일에 참여했지만 학교 참여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건 학부모들에게 참여를 부탁하고 리더한다는 것은 잘해도 육, 못해도 육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못한다며 뒷걸음질해도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에 맡은 일을 열심히들 합니다.

학교도 점점 학부모 말에 귀 기울려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학부모와 부딪쳐가며 해왔던 참여 활동들의 장단점을 깨닫고 고쳐가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학부모에게 강요보다는 학교 참여를 다양화하고 모든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학교교육 참여에 도움을 주고, 학교는 학부모의 고충을 해결하고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면 내 아이들에겐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최고의 학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언젠가 수첩에 메모해둔 글이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열정’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지 않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 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도 부모와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실천하고자 메모해둔 글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자신 없는 제가 이렇게 도전해서 엄마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항상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없어서 해보지도 않고 도전하지 않는 아들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현도, 민재, 현진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저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배우고 노력해야 할 것들도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스럽고 소중한 내 아들들을 위해 못 할 것이 없을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이 교실에 청소하러 갑니다.





‘배움, 나눔, 희망의 소리’를 표방하는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현장교육』을 관심있게 지켜보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독자의 한 사람이다.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의 과잉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때로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잊기도 한다. 수많은 정보 중 내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막막하게 느껴본 적이 있다면,『현장교육』을 열독(熱讀)하시기를 권한다. 올 해 발간되는『현장교육』은 특히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현장교육』발간으로 교사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의 노력에 감사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 인천용현남초등학교 교사 김영미

2011 「현장교육」은 과거에 비해 교육 현장과 독자에게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는 교육의 멋'으로부터 시작하여 '교육, 당신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의 코너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심도 있는 내용들에 오히려 지면이 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창의·인성 수업사례와 감성적인 학급경영이라는 기획 주제를 다루었는데, 이는 현재 일선 교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밀접하여 독자의 공감을 얻기 충분했습니다. 소개된 사례들은 현장에 널리 확산되고 현장 교원들로부터 더 큰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현장교육」에서도 이번 호처럼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현장성 있는 주제들을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현장교육」이 교원들의 교학상장의 장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 인천목향초등학교 교사 안 병 천

주말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수목이 우거진 숲길을 걸었다. 아침 숲속은 여백이 되어 나를 채워주어 참 좋다. 그런데 잠시 후 아이들의 습격이 시작되었다. 서로 먼저 정상에 올라가겠다고 차오르는 숨을 참으며 경쟁하며 내달렸고, 나무들이 뿐이내는 피톤치드향기는 아이들이 만들어낸 흙먼지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나무들은 지나가는 사람과相生하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相鬪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그래서인지 교육현장에서는 인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창의적 인재 양성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창의·인성 교육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침 '2011 현장교육'에서는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과목별, 학교급별 적용 사례를 공개하여,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적용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여러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전문 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논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유의 힘은 크다. 홀륭한 선생님들의 사례와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현장교육」이 매번 기다려진다.

- 계산중학교 교사 임상현

편집후기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거야 「임재범 비상」

"BE with YOU"로 새롭게 탈바꿈한 「현장교육」이 새로운 날개짓을 시도한다.
그동안의 고민과 노력들이 헛된 꿈이 아닌, 뜻 깊은 결실로 맺어지길 소망한다.

이 병 삼 (인천구월서초등학교 교사)

알래 드 보통 의 <불안> 이란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우리의'에고 '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짹이 없다.'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대했나 마음이 서늘해지는 구절이다. 그러나 교사인 우리 역시 인간이기에 '무시'라는 작은 바늘에 취약하고 사랑이라는 헬륨가스에 힘을 얻는다. 교육정보를 나누는 이런 잡지들이 좀 더 감성적으로 따뜻하게 진화해서 선생님들에게 '자긍심과 사랑'이라는 헬륨가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남 유 미 (인천신송초등학교 교사)

교육 현장 곳곳에서 선생님의 향기나는 삶을 매만지며 ...
나도!
숨겨진 땅 속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마중물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사이고 싶다.

- 손 미 정 (신송중학교 교사)

